



# 마음의 힘으로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자

열린날\_ 2016. 10. 29(토) 모인장소\_ 은평구평생학습관

주최  은평혁신교육지원단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지원]  은평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협력]  은평구평생학습관  황망포럼온평센터

## 환영사

### ‘마을의 힘으로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자’

은평지역에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지원과 교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기관들이 영리와 비영리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가 출범하여 지금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해왔던 일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아이들의 삶을 고민하며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툴고 느린 발걸음이지만, 차근차근 방향을 찾아가며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동청소년의 삶과 교육 고민하는 장으로 ‘은평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대회’를 1년에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올 해 2회째를 맞은 ‘은평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대회’는 ‘마을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마을 교육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마을 교육의 상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마을이 고민하는 새로운 교육은 무엇일까요?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을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교문을 나서는 순간 마을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보다 폭 넓게 마을을 만나고 마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지식교육의 보완이 마을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의 장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서로 협력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마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을 마을 전체에서 함께 지원하는 과정을 마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회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대회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마을에서 해 왔던 ‘마을교육’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을교육’을 상상하는 자리로 문을 열고,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마을에서의 청소년 인권, 마을과 학교의 협력 모색,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마을에서의 삶, 마을 속 대안교육을 꿈꾸는 등 다양한 이야기 방에서 마을의 교육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마을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은평이 가진 마을의 힘은 함께 생각하고, 경험에서 서로 배우고, 대화를 하고, 변화와 모색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은평의 아동청소년 단체 및 기관의 활동가, 교사, 부모, 지역 주민, 행정가, 청소년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인식의 점 하나를 새겨 넣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양숙**

2016 은평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대회

**마을의 힘으로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라**

**주최** 은평혁신교육지원단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지원** 은평구청 서부교육지원청 (2016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협력** 은평구평생학습관 희망플랜은평센터



# PROGRAM



## 01 마을교육에 대한 고민의 시작, 여는마당

마을이 새로운 교육을 말하다 4층 공연장

이미경(은평혁신교육지원단장·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공동대표)

## 02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듣고 말하는 이야기마당

움틀움틀 디딤방 3층 나눔실 1

진로, 마을과 만나 자립을 논하다 / **발제와 토론**

아아, 메아리방 3층 채움실 2

마을, 청소년, 인권 - 잘 어울리기 위하여 / **미니강의와 모색**

쓰담쓰담 동상이몽방 3층 채움실 3

학교는 마을에게, 마을은 학교에게 누구인가 / **사례나눔과 토론**

모락모락 사랑방 4층 나눔실 4

실무자들은 마을에서 행복한가? / **사랑방 자유토크**

꼬물꼬물 꿈꾸는 방 3층 나눔실 2

현실이 되어야 할 꿈, 마을 속 대안교육 / **제안과 토론**

※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를 1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3 친해지는 노는마당



※ 이야기마당 진행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방은 3층 나눔실3 입니다.



## 목차



마을교육에 대한 고민의 시작, 여는마당 9

기조발제문 마을이 새로운 교육을 말하다 10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듣고 말하는 이야기 마당 17

움틀움틀 디딤방 진로, 마을과 만나 자립을 논하다 18

아아, 메아리방 마을, 청소년, 인권, 잘 어울리기 위하여 27

쓰담쓰담 동상이몽방 학교는 마을에게, 마을은 학교에게 누구인가 34

모락모락 사랑방 실무자들은 마을에서 행복한가? 45

꼬물꼬물 꿈꾸는 방 현실이 되어야 할 꿈, 마을 속 대안교육 49



친해지는 노는마당 57

부록1 은평혁신교육지원단 60

부록2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62

부록3 아동청소년 기관 / 단체 정보 64



# 마을교육에 대한 고민의 시작

## 여는 마 당

### |인사

강양숙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 |발제

이미경 은평혁신교육지원단

### |진행

김혜정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임수경 은빛초등학교

# 마을이 새로운 교육을 말한다

마을에서 산다는 것, 마땅히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이미경 은평혁신교육지원단장 ·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공동대표

## ‘대학을 가야한다’ 라는 패러다임을 깨는 청소년

우리 사회는 사람답게 살려면 ‘대학’을 가야한다고 믿는다. 나도 그렇게 믿어왔다. 나 역시 대학을 나왔고 집의 아이들도 당연히 대학을 갈 것이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초중고를 보냈다. 대학을 지금 당장 가지 않겠다는 둘째아이에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진짜 대학 안 가?” 대학을 안 가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거부하는 것, 철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보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나 보다. 나도 그랬다.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저 대학 안 가요! 대학 가면 뭐해요?”하는 말에 당황하기도 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심지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겠다는 아이에게도 “나중엔 너 대학을 가게 될 거야! 너는 꼭 대학을 가야해!”라고 이야기 했었다. 그렇게 난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해왔다. 얼마 전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이하 은아청) 포럼에서도 생활시설 아이들의 대학 진학이야기가 나왔다. “아이들의 삶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지 않을까요?”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30년 전 내가 왜 대학을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근처에서 좌절된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아빠는 야간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한에 대해 우리 자매들에게 수없이 닳두리 했다. 그 이유에서인지 우리 자매들은 대학 진학을 당연시 했다. 그래서 난 대학에 입학했다. 나에게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출석부로 맞는 것도 감수했고 야자와 방학 학습, 고난의 진학 공부를 견뎠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덤이었지, 결코 즐거워 안 되는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대학입학에 성공했을 때 ‘내가 그토록 원했던 대학이 이런 것이었는가?’하는 질문을 수없이 하며 대학의 본연의 목적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목적’이 분명했던 고등학교 때가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며 대학생활을 했다. 나는 대학입학을 하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생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들의 삶은 어땠는지 관심이 없었다. 가정경제 때문에 취업을 해야 해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딸아이가 대학을 붙을까봐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는 친구, 엄마의 고백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렸던 기억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을 만났다. “제 주위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친척 중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때 나는

당황했다. “대학은 가야지!”하는 이야기 외에는 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과 연계하여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아이에게 영어와 수학은 외계어였고 학교는 밥을 먹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이 아이에게 “그래도 대학은 가야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겠다는 아이한테 어떤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입시교육, 경쟁교육이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은 폭력 아닌가?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는가? 진정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결국 난 답을 찾지 못했다.

작공에서 나와 보성생은 대학을 ‘새로운 경험을 제공’, ‘익숙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해 끝까지 대학 입학에 포기하지 않았다. 10대는 지능이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학습의 경험을 가져야한다는 논리부터, 영어는 할 수 있어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를 시켰다. 자기 소개서를 써주고 내신 성적을 위해 일요일 밤11시까지 사회, 역사, 경제, 영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아이들 모두 수능 보는 날 pc방에서 죽 때렸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보았다. 내가 작공에서 만난 100명의 아이들 중 3명만이 대학을 갔다.

우리는 ‘공교육’을 ‘학교’라고 부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중학교를 가야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고등학교를 가야한다. 그러한 우리 교육의 결과는 어떠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는가? 자립하는 인간으로 살기위해 대학을 가야하는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가? 자립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힘을 갖고 있는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 대학을 가는 순간 빗더미에 앉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안다. ‘혹시나’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엉덩이를 맞으며 공부하던 아이들도 대학을 가지 못했고, 대학을 갔던 아이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에서 친구들과 재미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면 돌아왔다. 그러나 마을에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배우게 하지도 못했다. 대학 이외에 20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없었다. 스무살 학교를 만들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하는 아이들은 선택 배우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성인이 되어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야한다”고, “너도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다.

작공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다. 이들에게 생존조차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 때리는 아빠, 남편이 싫다고 집을 나간 엄마, 정신지체 할아버지의 옷을 빨면서 10대를 버텨고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하루의 미션이었던 아이, 엄마를 따라간 누나 때문에 싫어하는 아빠와 살아야했던 아이, 형의 구타에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맞았던 공포와 자기보다 작아진 아빠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 살기위해 가출을 선택한 아이들은 생존이 불안하고 살기위한 본능만 강해진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는 없다. 살아야한다는 본능 밖에 가질 수 없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아무도 이야기 해주지 않는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중학교만 졸업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학교와 사회는 말한다. 그렇기에 이 아이들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살아가는 방법을 동네 형들에게 배웠다. 이 배움에 동네 아줌마들이, 작공이 도전장을 내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 ‘입시를 거부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학교 교육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립의 기본이 되는 생활교육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선택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필수로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 청년수당을 이야기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 무상등록금까지 이야기하는 세상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를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과정을 거부하자.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요구해야한다. 98% 청소년들이 진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야한다(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 교육으로 수업료가 면제이고 인문계고등학교만 수업료를 내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청소년들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수업료를 내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로 살아갈 많은 아이들에게 현실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한다. 그런 학교로 자기 선언을 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여, 함께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자.

그 입시교육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맞춤형 다른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은아청에서 하고자했던 ‘스무살 대학’이다. 다르게 살아감에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제대로 준비하여 진행하지 못했다. 입시교육을 거부하는 청소년을 학교밖, 학교부적응 청소년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지역에서는 “학교 정상화를 본능적으로 준비하는 청소년”이라는 뜻의 개념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진로교육을 하고자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고등학교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움직임에 학부모와 지역이 동참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간헐적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들이 주도하는 10대 청소년 학교와 20살 학교를 구에서 지원하고 만들 것을 제안한다.

### 마을의 진로교육 - 미래의 노동자

처음 만난 아이가 국어 47점 맞았다고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을 때 ‘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몇 점 맞니?” 그랬더니 “저는 평균11점이에요”, “저는 평균이 9점입니다”한다. “헐!” 아이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가 집을 나간 후부터, 그 이유가 아빠의 외도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집에 가는 것이 싫어지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고,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어려워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습과정에 손을 놓았다. 더구나 ADHD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 학교선생님들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했을 것이고 학교시스템과 어른에 대한 거부로 일탈행위를 가속화했다. 자전거 절도와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활화되면서 아이들은 문제가아 되어 갔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 향상이고, 그것의 시작은 성적향상이라고 생각했다.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학습지원이라고 생각했다. 전직 교사였던 맹생, 영어동아리를 꾸리고 있는 박샘, 우수한 성적으로 은고를 다니는 민이, 3년 기다려 모셔온 보성샘 등 교사진을 꾸렸고 전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이는 제법 잘 따라왔다.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8등하였다. ‘아 할 수 있구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아이도 “더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후 작공에 오지 못했다. 딱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겠다고 나간 후 오토바이 사고와 도난 사건으로 배달오토바이 비용을 마련하느라 기말시험 공부에 합류하지 못했고 대학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도 가지 않았다. ‘열심히 하면 성적도 오른다!, 공부도 재미있다’라는 경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나는 크게 낙심을 했다. 대학에 대한 미련도 버릴 수 없었다. 그런 나를 도리어 아이들이 위로했다.

“대학 안가도 잘 살 수 있어요” “저, 피자집 사장님이 군대 갔다 오면 체인점 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가 될래?”라고 물었다. 내가 묻는 ‘뭐’는 뭐일까? 아이들 삶에서 그 ‘뭐’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는 과일가게 아저씨, 작공의 뜻이 ‘작심하고 공부하는 곳’이냐고 묻던 중국음식점의 배달 아저씨, 배달 알바생을 적극 지원하며 아빠역할까지 해주려고 노력하는 치킨집 사장님. ‘열심히 하는 저분들은 언제부터 저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 의 질문에서 내가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부 안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라고 말했다는 어느 아줌마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한 분, 한 분 보기 시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분들이고 동네 사람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웃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제야 아이들의 미래가 다양하게 보이기 시작

했다. 우리 동네 분들만큼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일확천금을 벌기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는 아이들, 떼돈을 벌기위해 도박에 중독되는 아이들, 생활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일가게 아저씨를 만나게 해주었다. 만남을 통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었다. 이웃 노동자의 삶을 보면서 커나가는 청소년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배우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웃의 모습이 나의 미래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의 꿈은 지금 서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야한다.

‘대학만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는 거짓말이다.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우울해지고 그건 꿈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나 난 다르게 생각한다. 경제적 위기는 우리 앞에 분명히 있으며, 평생직장이나 안정적인 직장이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에 도리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노동의 현실에 대한 교육,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직업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진로교육이 될 수 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사회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 마을의 진로교육 - ‘노동력의 가치’ 계산법

진로교육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모든 학생들을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아래 일렬로 줄 세우는 건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걸 현장은 알고 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진로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한다.

지난해 은평지역 일반고 아이들에게 이루어진 진로교육은 바리스타, 애견미용사, 네일아트 자격 취득과정이었다. 각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격증을 취득한 아이들도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취직한 친구는 얼마나 될까? 경험 제공의 의미도 있

지만 현재의 인기 직업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진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까? 또 한 때는 진로교육이 몇몇 부모들의 직장체험이었던 적이 있었다. 부모가 직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니 은평에서는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교육이다.

직업을 소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진로교육에서 확장하여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현장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체험할 현장을 직접 발굴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동아리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또한 인턴 활동을 1주에서 3주까지 실제로 해야 한다. 청소년 인턴교육을 진행할 현장을 모집하고 면접부터 고객 서비스, 그리고 생산까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직장과 연계하여 진행하면 좋은데 쉽지 않다. 연계를 위한 역할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을엔카페에 현장체험으로 중학생들이 오는데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체험을 제공하는 일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의 인턴과 슈퍼비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활동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마을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축제나 단체 활동 등을 통해 마을과 친해지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는 것, 그것이 마을에서의 진로 교육이다. 그래야 마을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던 아이가 마을에서 실무자가 되고, 엄마, 아빠가 마을활동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민주가 창작소활동가가 되는 것이 좋은 예다. 마을은 청년이 필요한데 청년이 없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마을에서 찾지 않는다. 나는 돌봄 노동의 영역에서, 마을복지 영역에서,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사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인식이 진로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소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는 중산층의 기준을 몇 평 이상의 아파트와 자가용의 종류로 판단한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의 소비수준에 맞춘다. 희망소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펙이라는 자격증 전쟁을 하고 있다. 마을엔 카페지기들도 벌고 싶은 비용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한 적이 있다. 소비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니 노동력 가치는 없는 것이 되어 일하면서도 불행했다. '지금 왜 일을 하는가?', '자신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에 자신을 밀어 넣을 것이다. 더 많은 교육을 계속 소비하는, 교육소비자가 되어 가는 청년 중 한명이 될 것이다. 행복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 자신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로교육이다.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살이가 미래직업?  
지금, 마을 활동은 행복한가?**

작공에서 '비진학 청소년, 마을을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아이들이 마을에서 친구들과 작공 선생님과 살고 싶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던 아이들이, 꿈이 없던 아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우리도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작공에서 선생님이 되어 청소년을 만나고 싶단다. 해줄 말은 많이 없지만 '학교는 그만두지 말어'라고 이야기하고 싶단다.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었는데, 딱 한 달이라고, 한 달부터는 할 일도 없고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단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너의 이야기를 해주어", "너 희들처럼 다양한 삶을 경험한 청소년이 선생님이 되어야 다양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이해받을 수 있어! 좋아, 선생님이 되어보자"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아이들은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역사와 사람 이해를 위한 별자리 공부를 시작했고 마을예술가들을 만나 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배우는 모든 것이 아이들 마음을 설레게 했다. 목공을 배우면 집도 짓는 나무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요리를 배우면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고, 그림도 그리며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모든 배움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예술가들에게 물었다 "먹고는 살 수 있나요?" 예술가들 모두 "돈 벌기는 어렵지만 행복하다"

고 답했다. 아이들이 뒤로 물러섰다. "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마을교사든 마을활동가든 아이들은 배고플 것 같다며 고개를 돌린다.

대학생들에게 직업 소개로 마을활동가를 제안하였더니 "얼마 법니까?", "남편이 버니깐 마을 활동을 하는게 가능하지 않았나?"고 묻는다. 마을을 살만한 곳이고, 일할 만한 곳이고, 우리 사회의 돌봄과 삶을 지켜내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마을활동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활동을 시작했고, 경제활동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했다. 마을, 공동체, 활동가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훌 지나갔다. 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도 했지만 나에게 절실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기에 그만두지 못했다. 육아가 힘들어서 수다방을 만들고 수다방을 통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출한 아들과 딸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서로 위로하면서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다. 도서관에서 만난 엄마들은 동네 아이들을 돌보았고 다문화여성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도서관에 찾아온 청소년들을 품으면서 작공이라는 청소년도서관을 만들었다. 나와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꿈나무 도서관을 처음 개관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이제 도서관마을 사서가 되고 나 역시 청소년활동과 네트워크의 경험이 새로운 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는 마을, 자격증만이 경쟁력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철차와 원칙을 만들어가는 성장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었던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마을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로교육이다.

이제 육아를 벗어난 우리는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다. 새로운 마을활동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좋다. (이것은 병일 수 있다. 새로운 일에 맘이 설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

게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갈 사람들을 만나면 맘이 설렌다. 몸의 노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동료의 태도 변화는 든든한 힘이 된다.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친구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을에서 받은 선물이다. 책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울고 웃으면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있고 위로해주는 동료들이 있다. 위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함께 한다. 나의 마을활동은 외롭지 않다. 노년을 함께 보낼 친구가 있다는 것, 살만한 이유가 되고 일할 이유가 된다.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 그런 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마을활동가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마을 변화는 나의 삶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되고 작은 마을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으며 사는 마을활동가, 꽤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얼마 벌고 있냐는 질문엔 '교육과 의료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 별로 없다는 프랑스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을 이야기이길 바란다'고 답해야겠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돈 벌러 나간 작공의 청소년들이 시장과 단체교섭을 해가며 자신들의 일공동체를 구성해 일을 한다. 우리 모습을 보여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우리들의 삶이 아이들에게도 녹아나고 있는 것이다. 잘 살아야한다.

**이번에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활동가들과 토론하고 싶은 거리들!**

**아이들은 배고프다! 저녁식사 무상 제공**  
 - 무서운 거지근성 논리  
 - 거지는 안 되나? 놀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

**금연정책 흡연교육이 필요하다**  
 - 국가가 담배생산을 중단해야한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양육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어른**  
 - 마을이 책임질 수 있을까?  
 - 무슨 교육을 우리 마을에서 해야 하나?

**아이들은 어디서 행복한가? 친구관계가 불편하면 아이들은 죽음까지 감수한다**

임신과 낙태 우리는 성교육은 하고 있는가?  
 성폭력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나?

한  
를  
고  
고  
는

양  
제  
지  
하

다  
주  
가  
들  
말

기  
당

야

이  
마



'진로'하면 떠오르는 것은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체험? 마을에서 만나는 청소년은 묻는다, 나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지. 본격 생계 앞에 선 청소년과 '자립'을 지원하는, 혹은 더 좋은 삶에 대한 막막한 고민이나 자유로운 상상을 더 나누고픈 실무자. 지난했던 경험과 한계를 짚어보며 마을은 어떻게 자립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나누어보자.

**사회** 장보성 (청소년도서관 작공)

**이야기 손님**

김미혜 (청소년문화공간 JU)

전명수 (구립유스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이지민 (은평교육복지센터)

신서연 (마을주민)

**기록** 엄슬기 (은평구평생학습관 실습생)

**함께 나눌 이야기**

내가 만나는 청소년의 자립, 생계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 사례

한 사람의 청소년이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청소년의 자립지원, 진로교육에서 아쉬운 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된 나'의 모습을 완성 시켜나가는 과정인 인생길에서, 청소년시기에 만나게 되는 진로 고민과 진로 교육은 '참된 나'의 모습을 바르게 찾게 할 수도,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만났던 청소년들과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 함께 고민했던 일들, 고등학교를 어떤 학교로 대학에는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지 고민했던 일들, 학교를 그만 두기로 하고 그 후의 생활에 대한 고민들 외 다양한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을 몇 가지 작성해보았다.

### 내가 만나는 청소년의 자립, 생계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 / 사례

기관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부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 다녔더라면 1학년이 지나면 2학년에 진학할 것이고 그 후에는 3학년에 진학하고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처럼 흘러가겠지만, 학교라는 제도의 밖으로 나와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서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처음 겪는 막막함일 것이다.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고졸 학력까지는 취득해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또는 학력 취득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A(당시17세, 여자)가 기관에 다녔을 때 일이다. A는 중등 1학년 때 가정 문제로 학교를 나가지 못하게 되고 오래 집에서 동생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는데, 기관에 나와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일 자체로 크게 기뻐하였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집안 어른들의 압박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하였고, 연신내에 위치한 돈까스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아르바이트가 시작된 후 A를 가끔 만나게 될 때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물었을 때, A가 당했던 처우와 환경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회식을 가지며 청소년이었던 A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처음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일을 시키기도 하였으며(초과 수당 없이), 성추행과 성희롱발언과 그곳에 A보다 12살 차이나는 남자 직원과 계속 사귀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종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곳을 그만두기를 바라고 A와 이야기해보았지만 문제 삼거나 그만두기를 원치 않아 하였다. 지속된 설득으로 A가 그만두기를 희망할 때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A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했다. A는 당장 그만두더라도 다른 아르바이트가 필요했고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후 A는 몇 달 간 더 그 돈까스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의 청소년이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A사례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안전한 일자리'였다. A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하고 A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했지만 구할 수 없었다. A가 일했던 돈가스가게 사장님이 A를 다른 성인들과 같이 정당하게 급여를 책정하고 처우를 해줬더라면, 청소년인 A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더라면 A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돈을 모아 간호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던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한 사람의 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의식개선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립지원, 진로교육에서 아쉬운 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관에서는 자체적 진로체험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탐색에 대한 부분만 시행하고, 진로체험 또는 인턴십프로그램은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직접 체험하고 직업 속으로 들어가 본다는 점에서 청소년인턴십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좋았고, 3개월간 직장에서 작은 업무지만 받아서 처리해보고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경험이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월 60시간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받는 노동의 대가는 월 25만원정도, 시급으로 4,100원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식대와 차비로 명시되어있는 이 금액을 받고 인턴십활동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3개월의 인턴십 과정 중에서 직업의 특성과 업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많겠지만,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는 아쉬웠다.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사람, 지역사회, 프로그램, 제도, 정책, 예산 등)**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과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싶은지 고민하는 청소년들 모두가 마을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가까운 마을에서 당장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한 일자리"가 준비되면 좋겠다. 그리고 시를 통해 검증된 마을 일자리 또는 마을 일자리 체험장을 발굴해 인증해주고, 그 일자리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인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시행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더불어 청소년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해줄 수 있는 고용주들의 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이자 교사로서 8년을 지냈다. 청소년의 진로를 고민하는 토론장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얼떨결에 참여하겠노라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해졌다. 나는 청소년 진로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그저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다는 생각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난 8년 여 간 청소년들과 지내면서 들었던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10여 년 전부터 청소년기의 진로탐색이 공론화된 듯하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제도적으로 진로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음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 센터도 몇몇 기관과 연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과 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자존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업그레이드됨에도 가끔씩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분명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이들 스스로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하는데 말이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하여 대학 수시 1차 지원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아이들이 느낀 솔직한 생각을 읽고 잠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기사 인터뷰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있어 옮겨 적는다.

"저는 원래 꿈이 없었어요. 고1 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꿈을 적어서 내랄 땐 꿈을 지어냈어요. 그런데 자소서엔 생기부에 입각해서 써야 하잖아요. 결국 거짓 꿈을 갖고 자소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소서에 '꿈이 없다'고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왜 우리 학과 왔냐'고 면접부터 꼬이니깐요. 대학이 꿈이 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니까, 다들 연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안돼요? 저희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완벽한 꿈이 있어야 하나요?"

-한겨레21, 제 1130호 "대학에 가려고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기사 중-

진로탐색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인식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볼 때이다. 또한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꿈을 특정 직업을 위해 진학 또는 진로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긴 기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난 8년간 같이 지냈던 우리 센터 아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세 사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진로를 찾은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 가치를 두고 싶다.

현재 고3인 김주연(가명)은 수급의 조손가정이었고, 예쁘장한 것을 빼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

는, 아이들 말로 존재감이 별로 없는 친구였다. 학습 부진에 가까운 성적이었지만 잡기에 능한 것이 재주라면 재주였다. 그러나 우연히 센터의 바이올린 레슨에 참여하면서 이 친구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서와 같이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기초 지식이 없음에도 빠른 습득력을 보여 주었다. 이후 센터의 연합프로그램인 관악단에서 트럼펫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레슨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졸업생 중에는 중학교 때,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한 친구도 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대학입시에 몰두할 만큼의 머리와 자신감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일찌감치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하였다. 진학 이후에도 취업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 현재 꽤 알려진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멋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한 친구는 중3의 소위 문제아로 찍힌 이준석(가명)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잘 가지 않는다. 이 친구 또한 한때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아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을 자주 찾아뵈어야 했었다. 물론 센터 이용도 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자신이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음에도 덜컥 걱정이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꿈을 세우기보다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자는 약속을 하였고 현재까지 잘 지키고 있으며, 꼭 이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늘 지켜본다.

아이들과 지내며 느낀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때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성장한다.’이다. 아이마다 유전적, 환경적 기질과 상황이 다르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고 관용의 눈길로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자유학기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단, 아이들이 단순히 직업을 탐색하고 진학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기를 바란다. 좋은 답은 좋은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그러니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쓴 글 중,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귀를 옮기며 끝맺으려 한다.

‘살아있든 죽었든, 우리는 모두 우주의 일부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은 인간이든 다른 동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느끼는 기쁨 말고는 우리 인생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생노트>를 보면서 다시 확신합니다.’

- 포털사이트 <daum>의 스토리펀딩, 엔딩노트, 삶은 기록을 남긴다 중

## 나 름 의 삶 을 일 구 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A)이 있습니다.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리 등 체험 형식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한글 등 기초학습이 잘 되지 않아 자격증 취득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인이 되어 간단한 일거리를 하면서 나름의 삶을 일구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합니다.

A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잘 챙기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을 잘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심해지면 환청, 환시 나아가 불면, 거식까지 이어지며, 그것으로 비롯된 피해의식이 심해져 동료와의 마찰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A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강점을 발휘한다면 제 몫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지지기반이 약한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엄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A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지와 현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은평구 보건위생과와 본 센터에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진로지원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진로지원장학사업은 은평구 관내 위생단체 및 관련 영업주·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희망나눔장학금모금협의회를 설립하고, 관내 위생관련 분야 진로 희망 고등학생 장학생을 선발·지원하여 위생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고등학생들을 발굴·지원합니다. 발굴된 학생들에게는 취업과 인턴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하지만, 출근 당일 또는 면접을 보기로 약속한 날에 정작 나타나지 않거나, 일주일도 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이 적거나 실패의 경험이 많은 A와 같은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 부담스러운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면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굳은 의지와 현실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의지와 현실감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에서도 그에 마땅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마을에 콘텐츠가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은 콘텐츠 위주 혹은 활동가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희망

하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의 직업을 체험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학생들이 현실에 마주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 마트·편의점, 김밥집, 인테리어 사무실, 목재상 등과 같은 영리목적의 업체에서 직업체험을 해보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보다 현실에 가까운 일자리를 체험하기 위해 학생들이 '마을 인턴십'을 경험하여 나름의 삶을 일굴 수 있도록 많은 일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마을주민신서연

성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든든한 나의 자리이다. 나의 자리란, 내가 살아가고 만들어 가며 짐을 느끼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환경을 뜻한다. 그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건강한 자립을 맞이하게 된다. 이 자리를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고, 이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은 아직 불완전한 시기여서 혼자서 나의 자리를 만들 땐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 도움을, 이 자리를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가까이)있다. 그들에게 이것은 곧 생계로 이어진다. 이들에게는 자립과 생계의 구분이 없다. 자립이 곧 생계이며, 생계가 자립이다. 그래서 자리를 만드는 과정은 청소년기이지만, 이들에게 자립 후 삶도 자립-ing형이다. 이들은 앞으로의 계획, 진로, 방향들이 영향이 크며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본인은 어떻게 방향을 정하여 나아갈 것인지. 그에 따라 생계는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한다. 만약,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자립 후 생계에 맞춰진 삶은 좌절과 허탈감만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립. 건강한 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에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먼저, 이들을 위해 담당 및 지역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마을 등의 진심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리를 만들어 자립을 하기 까지 내적, 외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중 내적인 준비가 가장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모두 다르다.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져있고 매우 지쳐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외적인 자립을 위한 준비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참여, 체험 등은 이들에게 맞지 않다. 먼저 내적인 문제를 꾸준한 관심과 소통,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자립준비가 필요하다. 자립을 위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본인 삶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내면 치유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향후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다. 그런 다음 외적인 (물리적)지원이 필요하다. 기본 교육과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분야 멘토링, 프로그램, 체험 등이 필요하다.

지원에는 가장 먼저 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올바른 건강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정말 완벽하게 100%는 아니어도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선생님과 멘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멘토와, 후원 기관의 다양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기초, 진로, 심리, 인성 등) 프로그램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해당 아이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다. 예를 들면, 멘토 또한 학습지원, 방과 후 지원에 맞추어져 있는 틀을 좀 더 넓혀 이전에 비슷한 경험 혹은 기관의 경험이 있는 멘토링을 준비하여 학습은 물론, 내적인 멘토링 등을 말한다.

좀 더 깊게 사회적인 부분을 본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딤씨앗통장(CDA)과 기관 및 그룹홈 청소년들의 수급비 이용 계획, 퇴소 후(자립 후) 홈 지원 등을 더 현실적으로, 현 경제 흐름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자립 후 해당 시기의 사후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거나 혹은 구축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립이라는 것은 해당 시기나 기관을 벗어나는 것이 자립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족한 예산과 이것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예산은 방향과 다양성을 잃고, 또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편파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역시 현재 자립을 준비하고, 자립하여 혼자 나아가는 이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을 고민하고 하나씩 넓혀가고 항상 꾸준한 관심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나은, 또 더 나은 자리와 자립이, 그 개인의 삶이 건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필자의 생각이며, 마을과 선생님들이 함께 큰 틀을 잡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끌어가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 02

## 아아, 메아리방

마을, 청소년 인권 - 잘 어울리기 위하여

미니강의와 모색  
3층 채움실2



### 2 아아 메아리방

마을, 청소년, 인권 - 잘 어울리기 위해

청소년 노동권,  
참여·자치권, 성적 권리를  
아시나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마을이 복지혜택이 많은 곳을 넘어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고 꾸러갈 기본권이 보장된 곳이라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마을은 더 자세히 알고, 배우고, 말해야지 않을까? 노동권, 참여/자치권, 성적 권리와 마을에 대해 함께 돌아보고 지역사회에서 권리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10가지를 찾아보자.

**사회** 조미리 (검바우마을학교 PD)

**이야기 손님**

박정인 (은평노동인권센터)

허성학 (은평노동인권센터)

심미정 (아해청소년성문화센터 동아리지도)

서주영 (신나는애프터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이한우 (신나는애프터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록** 김지혜 (신나는애프터센터)

**함께 나눌 이야기**

청소년노동권 / 청소년 성적 인권, 성적권리 / 청소년 참여권, 참정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최근 이슈, 한계 등

**[사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청소년들 중 노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7.3%, 31.2%가 아르바이트를 경험.

대부분이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 환경아래 일하면서 다양한 권의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가 ▲최저임금의 이상을 받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가 ▲적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는 잘 주어지고 있는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는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힘든 경우는 없는가 ▲청소년이라고 일하면서 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가, 라는 6가지 항목을 놓고 따져봄.

그러나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응답.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그냥 참아 넘어가거나(22.6%), 일을 그만둔다(21.2%)라고 답한 비율도 43.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는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 절차를 잘 몰라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면서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출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받고 있을까요? |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2016.05.19)

1. 은평지역은 특성화고의 비율이 높다. 은평노동인권센터에서는 2016년 은평 지역 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또는 직업교육의 형태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학교교육을 할 때마다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엔 추가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등을 묻는 청소년 노동권리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은평문화예술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진관고 총 40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 있거나 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답변을 준 청소년은 386명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56명(14.5%),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6명(32.6%),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204명(52.8%)으로 집계되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가졌냐는 질문에는 253명이 답을 해줬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씩 나눠 가졌다 60명(23%), 작성은 했지만 받지는 못했다 43명(16.9%), 작성도 안했다 150명(59.2%)로 집계되었다. 직장에서 받았던 부당대우를 적어달라는 질문에는 101명이 답해주었고 돈을 늦게 주거나 적게 줬

다 25명(14.7%), 실수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았다 5명(4.9%), 약속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켰다 13명(12.8%), 무시하는 말 폭언 욕설을 들었다 18명(17.8%), 체벌 기합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7명(6.9%),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1명(1%),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했다 2명(1.9%), 일하다 다쳤는데 조치를 안해줬다 7명(6.9%), 통보없이 일을 그만두게 했다 3명(2.9%), 기타 3명(2.9%)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은 청소년들이 노동권리를 아주 모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와 같은 법적권리가 생소한 것은 어느 정도 맞다. 그러나 과연 청소년들이 노동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당하는 걸까?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았다고 해서 권리침해 사례가 저절로 사라지는 걸까? 그래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교육이 청소년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를 계속 고민하게 된다. “그래, 나에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어.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권리침해, 부당노동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라거나 노무사를 면담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비 청소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어려운 주문이다.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권리구제방법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선 곤란하다. 마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사용자와 노동자를 아우르는 노동권 개선활동을 이뤄낼 수 있을까?)

2. 청소년은 노동현장에서 독특한 장애물을 마주한다. 바로 ‘청소년’이라는 규정 자체다. 비청소년은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청소년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청소년 주체를 사회가 보호해줘야 할 존재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참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해서 신체와 의사의 자유에 대해 적절한 지도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청소년 노동’은 예외상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공부하기도 바쁠 시간에 알바를 하다니... 딱해라”라는 반응은 일견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청소년을 공부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노동을 청소년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청소년을 제대로 된 ‘노동자’보다는 용돈벌이나 하는 ‘알바생’으로, 일시적으로 일하고 말 비정규직으로 다루는 이들의 이해와 맞닿아있다.

실제 청소년 노동은 똑같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비청소년의 노동에 비해 업신여겨지기 일쑤다. 부당한 노동환경에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규정 아래 놓여있음으로 하여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 청소년은 이 사회에서 미성숙한 존재로, 가르쳐야 할 존재로, 무조건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이 규정은 일하는 곳으로까지 이어진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는 일방적인 예의가 요구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하여 정해진 급여를 주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청소년 인권의 문제가 아닐까. 일하는 곳뿐만이 아니다. 청소년은 학교 그리고 가정 등에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자신이 겪은 부당함과 불편함에 문제제기를 해본 경험을 갖지 못했다.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어떤 일도 발언권이 없다. 나의 일이라도 나의 선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분노와 행동보다 포기과 무관심이 더 가까운 선택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청소년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은 청소년 자신을 당당한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인권의 문제이자 노동권의 문제가 여기 있다. 마을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청소년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청소년 집단은 모두 청소년으로서 억압을 받지만, 청소년 집단이 단일하거나 균등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인 동시에 소수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중적으로 억압받는다.

청소년운동은 여성청소년이 '어린 여성'으로서 겪는 폭력과 차별 문제, 학교 내 성이분법, 성 차별적 규칙과 관행, 순결 강요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폭력과 차별 문제에도 청소년 운동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등에서 보수 세력이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자주 '성소수자 차별 조항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물 들인다'는 논리를 차용했기 때문에, 청소년 중에는 성소수자인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성소수자를 나쁜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폭력이며 차별임을 주장 해왔다.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 및 세력이 반대의 근거로 타겟 삼았던 부분은 조례 속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 그리고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항이었다. 실제로 학교의 성적 타락이 야기된다는 근거로 조례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나 임신 출산한 청소년, 성적 실천하는 청소년은 '보호'받아 마땅한 존재로도 취급되지 못하고 공공연하고 공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올해 교육부에서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는데,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된 연수 자료를 내서 논란이 되었다. 추후 교육부는 직접적 지시를 수정하였지만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없고,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고, 금욕 주위적이며 여성 차별적이고, 성폭력에 대해 왜곡하는 성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표준안이라서 여전히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013년 발표된 '2009~2013 이성교제 처벌현황'에 따르면 서울소재 고등학교 중 반 이상이 학생의 이성교제를 처벌하고 있으며,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어떠한 학교들은 조항과 더불어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처벌하는 조항을 학칙에 두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인간관계를 처벌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자율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체임을 부정하는 셈이다. 더불어 성적 관계를 적발되는 과정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일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십대 섹슈얼리티인권모임-서울시 인권포럼 토론회 중에서)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교육 받을 권리**

- 청소년은 책임 있는 성적 선택과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은 준비가 되었을 때 성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성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할 의무가 있다.
- 청소년은 자신의 개성과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건강한 성문화 관련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보호 받을 권리**

- 청소년은 상대와의 신체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어떠한 단계에서도 그만둘 수 있다.
- 청소년은 신체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청소년은 음란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은 성매매 등 물리적 압력에 의한 성적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이 성범죄(성폭력, 성매매-피해자가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토래지기)

청소년은 하나의 성적 인격체로서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모든 청소년에게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이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청소년의 참여자치 · 참정권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고 꾸러갈 기본권이 보장된 마을에서 청소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에 책임을 지며, 복지에 대해 받는 주체가 아닌 주고받는 주체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 학생다움을 강요받는 청소년

추운 겨울날, 등교하는 청소년들은 교복 재킷 안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에 걸음을 더욱 빨리 합니다. 돈이 없어 외투를 못 입느냐고요? 아니요, 교칙 때문입니다.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이 추운 날에 외투도 입지 못합니다. 비단 외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염색도, 파마도, 정치색을 갖는 것도 학생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답지 못하다’의 기준을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정했을까요?

우선 ‘학생다움’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봅시다. 염색하지 않았고 길거나 구불거리지 않는 머리(남자는 짧거나 구불거리지 않는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품이 넉넉한 사의와 무릎까지 오는 치마 내지는 평퍼짐한 바지)교복, 순종적인 태도 등이 그 예가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거리에서는 학생다운 학생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개성적이고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학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다움’이란 딱 막힌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잣대일 뿐이니까요. 학생이 학생다워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생다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저 인권침해에 불과합니다.

#### 청소년 참여자치의 필요성

막연하게 싫다고만 느꼈지 이러한 ‘학생다움’에 대한 이미지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왜 지켜야 하는지 고심해본 청소년은 아마도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학생다움을 강요받는 것, 또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 적겠지요.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정한 규칙과 기준들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청소년 참여자치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누군가 정해 놓은 틀이 잘못됐다면 그 안에서 부조리함을 찾아내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 앞의 부조리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여자치의 필요성은 고사하고 ‘참여’나 ‘자치’라는 단어조차 생소해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당장 부모님이, 선생님이 시키는 내신 관리나 학생부 채우기에 급급하니깐요. 학생 때는 학생답게 공부를 하라는 말을 귀에 박히게 들어서일 수도 있죠. 결국, 청소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기회가 적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자치활동을 알거나 부조리함을 바꾸려는 청소년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참여자치 교육의 부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교과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

다. 학교에서는 대학 잘 가는 법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되었다면 순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여 풀어나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은 몇몇 법률의 목적을 제외하고 청소년도 마을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성년이 되었을 때 올바른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함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참여자치기구의 구성

그렇다면, 현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치기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청소년특별회의, 제5조의2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기구들이 있는지, 이런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 청소년의 권리의 한계

위에서 언급된 두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참정권에 대한 교육이 나이, 학교의 종류를 불문하고 충분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잘 알지도 못하는 기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 19세가 넘어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충분해진다고 해서 올바른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과도한 정치화를 막는 장치가 충분합니다.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 더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깨끗해야 하는 정치를 기존의 비청소년이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막는 것은 기존 정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꼴이 됩니다.

청소년에게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그저 배우는 학생이 아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권리를 주장하며 비청소년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청소년의 여러 권리 중 특히 참정권에 대해서 청소년도 정책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이나 비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청소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를 충분히 알아보는 문제 파악을 해야겠죠. 그 후, 정리가 됐다면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부터 일상에서 내 옆 사람과 대화까지 하면 좋겠죠. 청소년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면 세상은 세상에 필요한 청소년의 능력을 얻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흐름에 따라 마을과 학교는 만날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너무 낮게 본다는 말과 너무 높게 본다는 말이 여전히 동시에 있다. 마을을 깊이 애정하는 교사가 마을을, 학교를 애정하는 마을활동가가 학교를 말하는 시간. 사립학교 속 문제와 혁신학교, 학교 내 교육복지는 마을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잘 협력해가고 있는지 헤쳐보자.

**사회** 최세나 (은평혁신교육지원단)

**이야기 손님**

조영환 (송실고)

박은미 (은평학부모네트워크)

조현수 (검바우학부모회)

최송아 (검바우 놀이터)

이수정 (은평교육복지센터)

김은유 (갈현초등학교)

**기록** 이윤희 (은평구평생학습관 실습생)

**함께 나눌 이야기**

학교와 마을이 서로 잘 협력하고 있는 사례

이를 위한 과정, 요소, 노력과 그럼에도 어렵고 한계로 느껴지는 부분

마을과 학교가 교육역할을 나누어 가지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는 학교만의 역할을 마을은 마을만의 역할을 하며 둘 사이에 협력, 소통, 연계 등의 말은 사라진 것이다.

최근에야 '마을과 학교가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반갑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 또한 만만치 않다.

수십 년에 걸친 역할 나눔 결과, 학교는 좀체 변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사립학교는 재정 지원은 정부에서 받으면서도 학교 안팎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 문을 더욱 걸어 잠갔다. 그 결과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유난히 은평에 많은 사립학교들은 은평 교육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

학교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막강권력 재단 이사장 아래 교사들은 교사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 구조 안에 매일 묶여있는 아이들, 그런 학교와 아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 이 관계는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어쩔 수 없는 묶음 혹은 묶임은 '입시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 주변을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학교건물이 오래 돼 안전문제가 심각해도, 부실급식으로 온 나라 사람들의 비난과 걱정을 받아도, 심각한 입시부정과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심지어 학교 돈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도 학교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마을은 변화의 바람을 부추기지 못한다. 사립학교 비리는 잠시 수면 위로 떠올라 많은 이의 분노를 일으킨 후 조금씩 가라앉아 버리기를 반복한다.

이런 학교를 바라보는 마을은 어떤가? 아무리 학교 안 문제가 심각해도 마을이 가진 힘으로 당장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마을 주민들은 학부모로 교사로 지역주민으로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학교 내 주체로 참여는 아직 문장 속에 갇혀있을 뿐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마을과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출발점은 어디일까? 크게 보면 공교육이 바로 서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사회변화가 뒤따라야겠지만 일단 그런 큰 과제는 잠시 뒤로 미뤄두기로 하자. 대신 마을에서 가능한 일, 마을사람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면 가능한 일부터 찾아보는 건 어떨까?

물론 시간과 마음을 내는 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참여하는 일, 마을과 학교가 연결고리를 찾고 지속하는 일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아이 입시와 성적에 도움받기 위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아니라 보다 많은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학교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 학부모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열린 학부모총회를 만들어 내는 일, 부실한 급식 대신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은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학교도 변화의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어야 한다. 몇몇 사람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 꿈쩍하지 않는다면 둥근 돌이 되어 굴러 떨어질 것이다. 학교를 위해 애쓴 공마저 날아가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만 기억될 것이다.

마을과 (사립)학교가 손을 잡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에 함께 하고 싶다.

## 검바우마을학교를 소개합니다

### 아이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에서 생활한다.

방과 후에는 학원을 가거나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한다. 어느 날은 먼 곳까지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마을에서 보내게 된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배우고 느껴서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론 아이들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반대로 교사들 또한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마을에서의 아이들의 삶을 살펴야 한다. 예전 아이들은 마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학교에 왔다. 한 동네 형, 누나들과 어울리면서 놀이 방법을 배우고 규칙의 중요성을 알았으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우쳤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모여 의논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문화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는다.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마을은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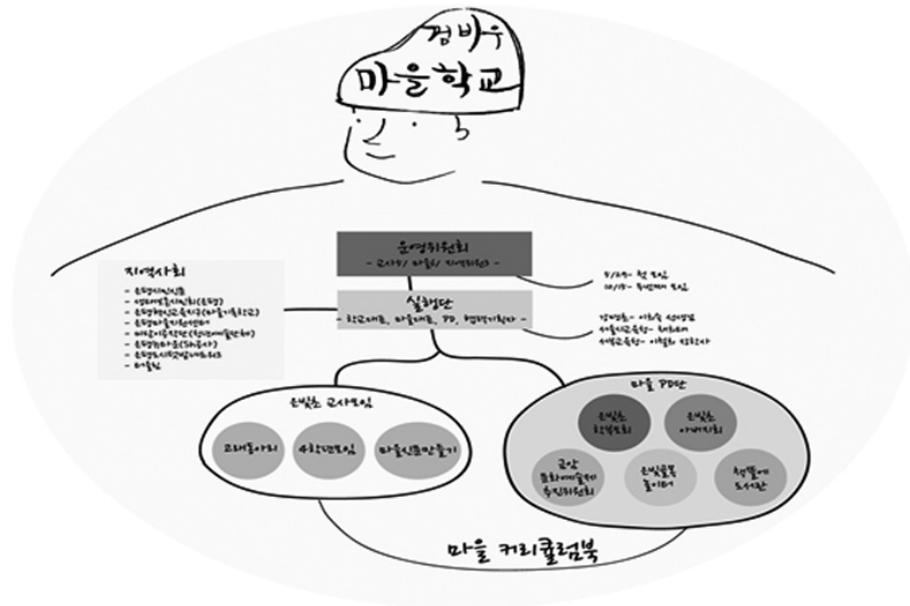
### 학교는 마을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마을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며 학교 밖 아이들의 삶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다. 왜 우리 학교교육은 답답한 교실에서 평면적인 교과서 위주로 배움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일상적인 학습 내용을 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역사, 생태 환경, 인공 조형물, 마을 사람들 등 인적, 자연환경을 연결시켜 각 학년 교육과정과 입체적으로 연결시킨다면 살아있는, 정말 신나는 학교 교육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마을의 역할 축소, 학교와 마을의 분리-를 함께 해결해 보자고 시작한 것이 검바우 마을 학교이다. 즉, 마을은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학교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마을에서 또는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 [검바우마을학교]는

2015년, '혁신초등학교\_은빛초'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네트워크(학부모회, 아버지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마을 네트워크와 은평구 지역기반 단체, 사업을 연결하여 마을-학교-공동체 단위에서 함께 활동을 진행하면서 은평구 내에 사회적 연대망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을 주체를 학교 → 마을이라고 하여 '아이들'로만 보지 않고,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과 만남을 통해, 주민과 학부모, 교사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 연계하려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마을PD단을 구성하여 기존의 학부모로서의 역할만 강조 되어왔던 구조를 벗어나 함께 즐거운 마을 살이- 마을교육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검바우마을학교가 시작되었다.

1. 마을과 학교,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우선, 검바우마을학교 운영위원회(교사, 학부모, 지역단체 등)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 틈만 나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 PD-학부모회, 아버지회, 은빛골목놀이터, 책뜰에 도서관, 금암문화예술제, 공동부엌-들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였다. 4학년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이 여름 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업 계획을 짜고, 2학기에는 아이들과 마을 곳곳을 다니며 생태 수업, 미술 수업, 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풍물동아리에서는 4~6학년 창의체험동아리활동 수업에 참여하여 풍물을 전수하고, 인근 진관초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검바우마을학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금암문화예술제'는 참여해 보았을 것이다. 우리 마을 '금암기적비'가 있는 금암 공원에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친구들이 준비한 연극, 합창, 뮤지컬도 볼 수 있는 마을 축제 말이다. 졸업생들도 모두 북이나 댄스팀을 만들어 함께하였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선선한 가을 날 마을 골목골목에서 제기도 차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 줄넘기도 하는 '골목 운동회'에 함께 했을 것이고,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 후 친구들이 없을 때 마을 이모들이 펼쳐주는 '은빛 골목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기도 했을 것이다. 고학년을 위한 학부모들이 직접 알려주는 진로교육 '미래세상알기', 베짖이 음악회, 인문학 풍만한 은평시민대학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은빛초와 미담이공작단(청년예술단체)과 함께 '토요금암문화학교'를 진행 및 기획한다.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금암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를 필두로 다양한 제안과 활동을 공유하며 진행한다. 또한 예술제는 검바우마을학교의 마을PD단,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함께함으로써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등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 아이들은 금암문화학교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여 현수막과 리플렛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씨들을 선보이고 연극과 뮤지컬, 합창 공연을 함께한다.

풍고집은 '금암 수요 방과 후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학부모의 재능기부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업과 체험 기회를 주고 있다. 학부모들의 재능기부, 협력,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잘 결합되기까지 어떤 과정, 요소, 노력이 있었는가?

마을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학교와 어떻게 연결해야할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와 관계없는 마을 주민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도 그랬다. 그러나 지속적인 만남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 지금은 '우리가 할게요~'라고 먼저 말한다. 학부모 독서동아리의 모임도 책뜰에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문학을 접할 기회를 주고, 학교 학생동아리도 학교가 아닌 색다른 공간인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 동아리나 마을 공간을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공동체에 오픈하는 과정에서 운영진의 동기가 필요했고 대부분이 학부모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활용방안이 통과 되었다. 또한 함께 하는 검바우 프로젝트로 인해 이러한 결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은빛골목놀이터를 만들기까지 1) 놀이터를 지킬 이모, 삼촌 모집하기. 2) 학교에 인정받기 -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의 놀이와 왜 중요한지를 함께 토론하고 가장 안전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허락 받기. 특히 교장실 앞 공터에서 시끌벅적하기. 3) 각종 연수를 통해 놀이터 지킴이를 모집하고 학교 가통을 통해 아이들 모집하기. 4) 정기적인 이모, 삼촌 모임을 통해 놀이터의 내실을 다지고 놀이 전파를 통해 아이들에게 놀 거리 제공되어야 했다.

금암문화예술제 역시 다양한 마을예술제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고자,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마을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검바우마을학교의 금암문화예술제는 마을이 교육문화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어가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쏟게 되기 마련이다.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질을 개발하고, 수업에도 참여 하면서 자긍심이 커졌다. 그리고 이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억지로 시켜서 잘 되는 것은 없었다. 자발적인 참여는 좋아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검바우에서는 좋아서 하는 것을 더 밀어 주었다.

3. 그럼에도 어려운 점, 한계점은 무엇인가?

(놀이터) 1시간 이상 오토이 놀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아 잠깐 짬이 나는 친구들도 운동장 놀이보다는 손쉬운 핸드폰과 텔레비전 놀이가 한창이다. 아이들에게 전자제품의 놀이가 아닌 땀 흘리며 뛰어노는 몸놀이를 전파하는데 한계가 느껴진다. 또한, 학교를 떠난 지 20년 가까이 되는 역시 놀이를 잊어버린 이모, 삼촌들의 꾸준한 놀이 연구도 필요하다.

(풍고집) 자원봉사자, 참여 학부모를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요~

(금암문화예술제) 엄마이자, 학부모회이자, 마을피디로……. 아빠이자, 아버지회이자, 마을일꾼으로 지역단체이자, 학운위-지역위원이자, 마을PD로…….

본래의 '몫'이상을 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 꾸준히 함께하기 위한 우리는 조금은 가볍고, 더 많이 즐거워져야 하고, '누구'의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마을 살이 /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학부모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 여러 가지 일에 걸쳐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일을 그들이 함으로써 이들의 참여비중과 횟수가 커진다. 엄마로 아빠로, 학부모로, 마을 주민으로, 마을 강사로……. 맡고 있는 많은 역할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힘들어 지지 않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더 다양하지 못하고 늘 참여하는 사람이 중복된다는 것이 아쉽다. 더 많은 참여와 고른 혜택으로 나눠져야 한다.

마을의 일자리, 활동이 보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활동가, 자원 활동을 위주로 도움을 요청해야했다. 이에 마을 실행단을 포함한 마을 단위의 '공간·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며, 그곳을 관리 운영하는 마을 살이-지킴이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새로운 마을의 역할과 활동을 기대하고 싶다.

사업이 진행되는 3년이 지난 후 검바우 마을학교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은평교육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교육소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지원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학교 중 교육소의 학생의 비율이 낮아 전문인력(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초11개교, 중3개교, 8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배치된 곳을 거점학교, 배치되지 않은 곳을 일반학교라 합니다. 저희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적응력 또는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개별사례관리하며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합니다. 또한 센터 내의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반학교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와 사업을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기관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 의견을 조율하는 가교역할을 합니다.

은평교육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 중 저는 학교와 마을이 결합된 사업인 '나눔학교'와 '자연치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학교'는 지역 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재능기부단체인 디아코이노와 함께 학교의 교육소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사회복지사, 수학과 교수, 전기기능사 등 다양한 영역의 재능을 가진 마을 어른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고취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치유학교는 학교부적응(잦은 지각, 결석, 무기력, 비행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와 연계하여 최소 2주~최대 3주 동안 센터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출석 인정이 가능하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마을활동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이 발견되면 센터로 의뢰를 하고 센터에서는 학생과의 초기면담을 통해 개별 학생 맞춤형으로 생태교육, 요리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각 담당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눔학교를 통해 은평교육복지센터는 학교와 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첫 회기를 준비하며 학교와 마을의 결합이 쉽지 않은 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은 학교의 행정절차,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다. 학교의 특성상 행정적인 절차는 1-2월에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에 마을이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 프로그램 일정을 잡거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눔학교를 4월에 시작하기 위해 3월부터 각 학교에 찾아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였지만 학교 측은 이미 자체적인 프로그램 준비로 분주하여 공동사업은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들곤 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세분화하여 수립하고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마을에서는 학생들의 욕구와 반응을 반영하고자 세분화된 계획보다는 프로그램 안에서 학생들이 흘러가는 대로 계획을 변경

하러 하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며 방향을 수정하려는 등의 운영방식을 선호하여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은평교육복지센터는 학교와 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간에서 학교와 마을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게는 마을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마을에게는 학교의 체계를 이해시켜 보다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 센터가 다 같이 모여 의논하는 자리를 가지고, 프로그램 마친 후에는 평가회를 통해 서로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을이 곧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학교는 마을의 시도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동성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마을은 학교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갈 현 초 등 학 교 김 은 유

21세기의 최고의 화두는 교육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듯 2016년 교육복지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본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 위치한 학교로 2007년부터 사업학교로 지정되어 현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점학교이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하는 일을 집약적으로 설명하면 학생(집중지원학생 발굴, 상담, 맞춤형 성장 지원), 가족(가정방문, 두세대 프로그램 등 가족 지원), 지역연계(학교, 지역기관 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운영)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중점학교)에서 올해 사업 명칭이 바뀐 것은 점차적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첫째,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둘째, 학교-자치구-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이다.

2016학년도 교육복지 추진 방향과 5대 중점과제는 아래와 같음.

### ■ 교육복지 추진 방향

- 교육복지 행정 업무 간소화
- 교육복지업무를 교사의 일상적 교육활동으로 안착
- 취약계층 및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교육복지통합지원팀) 구축
- 교육복지 유공공원 가산점을 학교교육력제고 연구공원 가산점으로 전환

### ■ 5대 중점 과제

- ① 취약계층 유아의 교육안전망 구축 및 유아사업 내실화
- ② 초·중학교 교육복지 일반화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시스템 강화
- ③ 고등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사업 확대
- ④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협력체계 내실화
- ⑤ 교육복지 사업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는 학교에서만 생활할 수 없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조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아동의 복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내에서만, 아이만 변화시켜서는 어렵다. 그렇기에 마을의 자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 본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과 결합된 일 소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일은 다양하다. 가장 인상 깊은 본교의 세 가지 활동을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첫째, 물푸레생태교육센터와 함께하는 탐사단활동은 3~4학년 아동들이 월 2회 은평구의 산과 공원 등을 둘러보며 마을을 체험하며 이해하게 된다. 특히 일 년에 한 번 있는 북한산초등학교에서의 캠프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하는 추억이고 매년 또다시 싶다고 이야기할 만큼 참여도가 높다.

둘째, 복지관과 은평구건강가정센터와 하는 가족프로그램이 있다. 월 1회로 토요일에 진행되는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부모의 관계증진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은평교육복지센터와 함께 하는 모닝케어 프로그램이 있다. 주 3회로 아침에 혼자 등교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시니어 분들이 직접 집으로 가서 간단한 조식을 먹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프로그램이다.

### 잘 결합되어 있기까지 어떤 과정, 요소, 노력이 있었나요?

학교와 기관이 함께 일할 때 업무추진 방식이라든지 결정 체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로 한다.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기관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담당자가 학교로 오기 전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기관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이들의 강점에 대해 소개하면 담당자를 만났을 때 학교관계자들에게 좋은 첫인상이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사업을 함께 하는데 한결 수월해진 상태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양해를 구한 뒤 관계자들과 상의 후 대답하는 것도 신뢰관계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된다.

### 그럼에도 어려운 점, 한계로 느껴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목표는 동일하나 과정과 방법이 다르고 부모와 마을 학교가 함께 움직이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심히 마을과 학교에서 개입을 해도 아동의 주 생활공간인 가정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쉽게 변화하기가 어렵다.

협의회 등 학교의 대표로 참석은 하였으나 당장 그 자리에서 안전과 답변을 하기보다 상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처음 기관과 사업 및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계획서를 구두로만 이야기하거나 미비한 상태에서 논의할 경우 기관의 신뢰성을 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기가 어려운 것이 안타깝다. 각 사업별로 관리를 할 인원이 교내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사후 준비 및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는 곳도 있는 반면 일을 다 추진한 뒤 그 뒤에 이야기를 하여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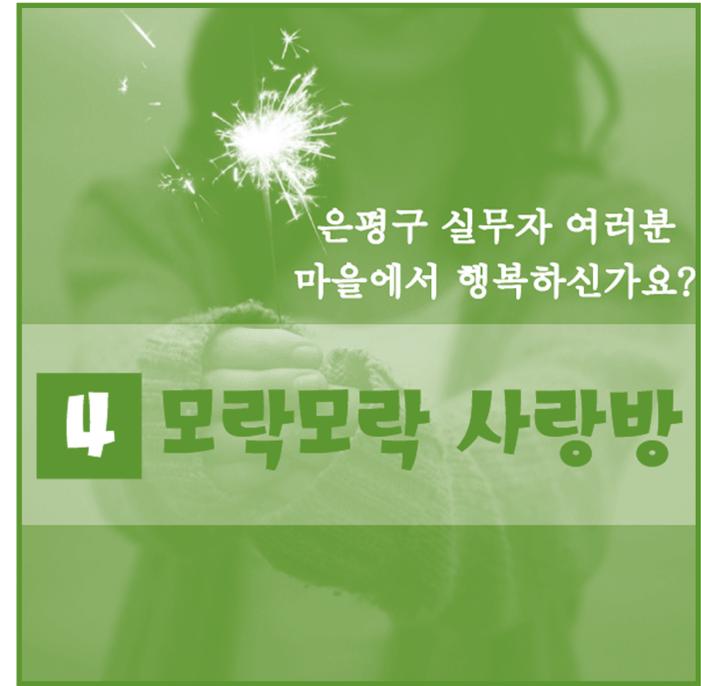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마을과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04

## 모락모락 사랑방

학교는 마을에게, 마을은 학교에게 누구인가

사랑방 자유토크  
4층 나눔실4



은평구 실무자 여러분  
마을에서 행복하십니까?

## 4 모락모락 사랑방

아동·청소년에게 '마을이 좋다' '마을을 알아야 한다' '마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실무자들. 그러나 자기 경험치를 기반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나부터 우리부터 물어보자. 우리 동네에 살아서 행복한가요? 우리 동네에 살면서 어려운 점은? 그것이 아동·청소년활동지원에 어떻게 녹아들고 영향을 미치나요? 아동·청소년이 다양하듯 실무자도 다양하다. 마을 속 실무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돌보는 시간.

**사회** 박한진 (은평구평생학습관)

**이야기 손님**

김효정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승주 (신나는애프터센터)

안재희 (은평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기록** 최송이 (은평혁신교육지원단)

**함께 나눌 이야기**

마을(은평)에서 일해서 좋은 점

마을(은평)에서 일해서 힘든 점

더 나은 마을 속 활동을 위한 대안 찾기

2015년 6월, 저는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담당자로서 은평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를 오기 전까지는 서울에 은평구라는 자치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실무자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은평구 내에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떤 청소년시설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에 대해 은평구 내에서 이미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신 다른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은평구 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주로 어디서 노는지? 주된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은평구 내에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고 계신 실무자 선생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은평교육복지센터, 은평씨앗학교, 작공, JU, 꿈꾸는 다락방 등 다양한 기관, 많은 실무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고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무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제가 이 아이들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학교 안 청소년과 다른 엄청난 무언가를 가진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학교 밖, 학교 안이라고 어른들이 규정하는 틀 안에서 구분되지만 모두 똑같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서는 오히려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에서 1년 반 정도 학교 밖 청소년 담당 실무자로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행복이었고,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하였고, 이러한 고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한다는 부분 역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의 수만큼 다양한 기관과 실무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점이 은평구의 강점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강점이 좀 더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을 은평구에서 살고, 청소년활동을 하면서 이보다 더 활발하고, 잘 연결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든 지역은 없었다. 신나는애프터센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다른 기관을 탐방할 때도 우리 동네만큼 기쁠 땐 같이 기뻐해 주고, 힘들 땐 한마음으로 도와주는 지역은 어디에도 없었다.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장난삼아 은평구는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웬지 맞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도 모든 실습을 은평구로 나왔다.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조금이지만 그 곳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신나는애프터센터 관점에서 바라보던 마을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하지만 나의 일터가 되어보니, 늘 좋고, 기쁘고, 잘 풀리는 일들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평범하게 있는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도 있고, 넘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들을 서로 잘 감싸며 지켜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꼽자면,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트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소통할 기회가 없다. 그렇다고 시간적으로 알아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할 때나 무엇인가를 같이 해 나갈 일들이 생긴다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들, 수많은 엇갈림들, 갈등이 되기도 한다. 서로에 대해 알고 가면 더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들도 어려움을 겪거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는 것 같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곤 한다. 하지만 각자의 일에 대해, 고민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조언을 구하긴 더더욱 힘들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내다보면 네트워크나 모임들이 생겨나는데, 가기는 꺼려진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나고, 모임을 진행하긴 하지만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알아간다는 것이 억지로 모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오히려 알아간다는 생각과 인식을 하다보면 더 어색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다가 모임이 되는 소규모의 작은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일터와 쉼터가 분리되지 못하고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조언을 얻으면서 함께 나아간다. 집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쉬는 시간도 갖고, 친구들이랑 마찬가지로 시간들을 보낸다. 하지만 일터와 쉼터가 하나가 되어가면서 친구들이 곧 직장의 동료가 되고, 직장의 동료가 곧 친구가 되어버린다.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 얘기가 나오게 되고, 문득 이걸 내가 아직도 직장에 있는 듯한, 일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말이 있는 이유는 때때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쉬라는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터와 쉼터가 하나가 되는 시점에서 마음이 편한 휴식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일을 하는데 있어 친구로서 가진 감정이 이어져 객관적이지 못하게 작용하고, 일을 할 때 그 감정이 개입되곤 한다.

물론 일터와 쉼터가 구분되지 않는 점에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터에서 하는 고민으로 인해 나의 쉼터, 사는 곳이 더 멋지게, 좋은 동네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위에 예는 너무나도 지극히 일이 잘 풀리고, 긍정적인 케이스의 이야기인 것 같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그 안에서 당연히 갈등과 오해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들이 일터에까지 온다거나 반대의 경우 일터의 일들이 쉼터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 일터와 쉼터가 같은 직장인들이 가져가야 할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다.

# 05

## 꼬물꼬물 꿈꾸는 방

현실이 되어야 할 꿈, 마을 속 대안교육

제안과 토론  
3층 나눔실 2



마을에서 청소년을 만나면 '대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매 순간 절감한다. 아침에 교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마을에 남은 청소년, 학교에서는 주인공의 주변인 역할만 맡겨지는 청소년, 하고 싶은 활동 할 시간도 없고 용기내서 해도 낙오를 예고당하는 청소년, 학교 외의 시간이라는 여백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 마을 속 대안교육은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어떤 모습까지 상상/실행해보고 싶은가. 0단계부터 얘기해보자.

**사회** 문미정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이야기 손님**

장한은희 (in공감)

김명자 (은광지역아동센터)

유희정 (전환마을은평)

**기록** 윤지희 (은평혁신교육지원단)

**함께 나눌 이야기**

왜 마을 속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나요?

마을 속 대안교육이 이뤄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대한민국 대안교육 20년, 은평에 대안학교 권하기

1990년대 말부터 교육에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곳을 학교라는 명칭으로도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였고 그래서 ‘대안교육’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그 시기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동의 이해가 있었고 지금의 학교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지금껏 아무 의심 없이 지탱해 온 우리사회의 교육에 대해 ‘교육을 국가에서만 주도해야 하는가?’,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건가?’, ‘교사는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기만 해야 하는 걸까?’ 등의 질문을 던진 것이다. 물론 대안교육이 시작되었다고 그때까지 있던 교육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다. 다만 누구라 할 것 없이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경쟁교육 그만하자’, ‘교과서로만 하는 교육은 그만하자’ 정도는 충분히 동의했었다고 생각된다.

### 1. 마을 속 대안교육

근대 학교제도를 통해 국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을 양산하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혹은 거부하는—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게 없고, 학교에서 견디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점차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은평구는 학업 중단률이 높은 자치구이다. 아이들에게 어서 빨리 정신 차리고 검정고시를 봐 대학에 가라고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러기 전에 전혀 다른 삶의 생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대안교육이란 공교육의 보완재나 하위파트너가 아니라 현 교육제도의 문제를 넘어서려는 대안적 실천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삶의 가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새로운 가치로 좀 다르게 살아보려는 모색이다.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된 세상에서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은 일상생활 자체가 대안적인 삶이 되는, ‘삶’과 ‘삶’이 조화롭게 영위되는 ‘대안적인 철학’을 가진 마을 속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업과정’보다,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므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근래 대안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마을학교’이다. 우리나라 서당이나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가 그렇듯이 대안교육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대부분 대안학교들이 지역 속 학교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만들지 못해 지역과 유리된 곳이 많다. ‘대안학교’라는 명칭이 이미 사회적으로 공교육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최후의 선택지로 선택하는 학교로 낙인 찍혀버렸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공교육이 교육적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면 더 나은 ‘대안’을 기치로 걸고 지역이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다.

### 2. 은평구에 맞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대안교육 현장의 첫 번째 평가기준은 대안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공교육 체계로 복귀시키거나

아예 학교가 인가를 받아 제도 안으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다. 학교 적응을 못해 나간 아이들을 챙겨서 다시 들여보내는 게 임무가 되는, 공교육의 하위파트너로 인식하거나 학교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돌보는 공교육 체계의 보완재 정도로 대안교육의 역할만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에 ‘위탁형 대안학교’가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발언은 일종의 배신처럼 들릴 지도 모르겠다. 마치 정부가 전향적으로 베푸는 시혜나 길들이기의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 불온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교육과 차별되어 자율적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대안’교육이 소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귀족학교가 되거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성지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솔직히 학생들이나 부모들에게도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훨씬 매력적으로 들리고 관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는 무엇보다 은평구의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자구책이다. 기존 대안학교들이 부과하는 고액의 학비와 생활비(기숙형) 부담으로 인해 대안학교들이 중·상층 위주의 교육기관의 변신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를 중단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검정고시제도일 뿐이다. 그들에게 비인가 대안학교처럼 대안교육의 가치나 이념을 전달하고 학교를 운영해 나갈 운영주체가 되어줄 학부모나 학비를 기대할 수 없지 않나? 또한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선택하였으나 막상 그들이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또는 찾지 못한다면—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시킬 것인가? 많은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들의 과오는 지나친 순정주의와 이상주의라고 생각한다.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만나고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현실적인 제한(졸업장과 취업)을 극복해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하자 작업장이나 공간 민들레는 단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가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그 곳에 죽치고 눌러 앉아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배움터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으로 점차 발전되어 가는 형태가 은평의 지역 정서에는 훨씬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평구에서 학교를 그만두려 하거나, 혹은 이미 그만 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정규학교에 속해 있지 못하고 학력미달 문제로 얼마나 큰 불안감과 상실감을 가지는지 익히 보아왔다.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여겨지는 검정고시가 아이들에게는 큰 낙오감으로 자리 잡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학력 인정이라는 공교육이 제공하는 제도적 안정성과 유용성을 확보하면서 대안교육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안과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안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회적 변화와 아이들의 욕구를 무시한 채 우리가 선택한 이념과 삶의 가치관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처음 대안교육이 시작된 90년대의 모델과 교육방식, 철학, 소통 방식을 고수하고 그것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깊이 고민해볼 때이다.

### 3. ‘마을이 학교’라는 고전적인 교육명제 앞에서

수많은 교육 관련기관들이 은평에서 학교와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별로 문제의식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공교육의 문제점을 말하며 책임소재를 학교에서만 찾으려 하면서 단순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대안’교육은 아닐 것이다.

1997년에 간디학교가 문을 연 후로 벌써 20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에 대안교육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대안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세월이 아닌가. 우리 은평도 이제 교육을 망치고 있는 주동자가 누구인지, 배후가 누구인지 분노해야 할 대상만을 찾고 있지 말고, 우리는 왜 그동안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서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우선은 그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계절학교나 1년 과정의 단기 중점학교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해 보며 마을이 학교라는 고지적인 교육명제를 다시 한 번 힘껏 펼쳐보는 것도 좋겠다.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의기투합된다면, 그저 설립 2년 차까지는 내실을 다지고 일종의 '버티는'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는 배짱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떤가. 은평구 곳곳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매년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고민과 토론으로 넘쳐나는 수많은 모임들이 이제는 지겹다. 이제는 행동과 실천으로 함께 가는 새 길을 열어야 할 때다.

## 은 광 지역 아동 센터 김 명 자

### 들어가는 말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지 10년째 되는 은광지역아동센터 일꾼 김명자입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한 10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수적으로 질적으로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해 2007년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수가 2,600여 개였는데, 2015년 12월 기준으로 4,100여 개 소가 운영되고 있고, 2007년도에 76,000여 명이던 이용 아동 수도 2015년 12월에는 101,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은평구에도 현재 2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약 89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전체 26개 공립학교(사립학교 제외) 21,800여 명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750여 명, 학교 돌봄 이용 아동 1,574명, 기타 방과 후 아카데미와 방과후교실 이용 아동이 약 300여 명입니다. 전체 아동 수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도 돌봄 기관을 모두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꽤 여러 해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최근 다양해진 돌봄 당사자들의 욕구와 급하게 마련되는 돌봄 정책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할 권리가 있는 모든 아동과 그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른으로서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좋아지리라는 기대 등……. 돌봄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내놓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돌봄을 찾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 모두가 '돌봄 취약' 가정

몇 해 전부터 나라의 돌봄 정책은 부처별 돌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하여 만족도 높은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엄마표 온종일돌봄교실'은 정책이 시작된 지 3년이 채 안 돼 초등학교 1,2학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엄마표'와 '온종일'을 슬그머니 떼어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의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온종일 엄마표 돌봄 교실을 전면 실시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지역아동센터로서는 긴장하고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이리다 아이들 다 뺏기는 거 아니냐며 대책을 마련하느라 술렁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에 돌봄 기관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 그것도 학교라는 나름 '돌보기 좋은 여건'의 장소에서 '우리 마을 아이들'을 돌본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을 주로 돌보고, 맞벌이가정이나 기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교 돌봄을 이용한다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돌봄 정책 때문에 문을 닫는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곳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이나 시골처럼 아이들이 적은 곳에서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에 내줘야 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하니 꼼꼼하지 못한 정책이 누구 살리자고 누구 죽이는 결과를 낳은 꼴이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라의 돌봄 정책은 크게 나아가지 못한 채 돌봄의 욕구와 수요만 드러낸 상태입니다. 돌봄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전면 실시된다 하니 이제까지 돌봄에 보낼 생각도 못했던 부모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돌봄을 기대했습니다. 사

실 돌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뿐 아니라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전업주부'였던 시대와 달리 요즘 세상에 아이들만 돌보는 엄마는 많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각각 바쁘고 과거에 아이를 봐주시던 집안어르신들과 함께 살지 않으니 아이들을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은 대체로 '돌봄 취약'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저는 올 한 해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생태계살리기' 사업을 앞자리에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돌봄은 욕구와 필요가 다양하고, 따라서 돌봄 방식도 다양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존기관 돌봄이 돌봄 수요를 수용하는데 수적으로 부족한 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이고, 다양한 돌봄의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기존 돌봄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기존 돌봄은 기관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맞아야 이용할 수 있고, 때로는 아이들을 기준에 맞추기도 합니다. 일종의 '규격품'같고, 좋게 말하면 '종합 돌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놀이와 학습, 문화 활동과 정서지원, 그리고 식사까지 일상의 활동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경제활동을 하느라 아이를 혼자 뒀야 하는 가정의 부모들은 숙제를 봐주고 여러 활동도 하고 아예 저녁밥까지 해결해주는 돌봄이 매우 고맙고 요긴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종합 돌봄'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 형편과 부모의 처지에 맞게 적절한 부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요. 방과 후에 학원을 돌봄처럼 이용하는 맞벌이 엄마는 학원으로만 돌리는 것을 미안해하고 있고, 세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종일 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지쳐 아이와 충돌하게 된다며 1시간이라도 돌봄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학교 돌봄은 경쟁이 높아 엄두가 안 나고, 자격이 안 돼 아이를 돌봄 기관에 보내지 못하는 엄마, 유치원 아이와 초등학교 자녀의 하교시간이 겹쳐 한 아이를 집에 두고 데리러 가야 하는 엄마, 직장에도 안 다니고 돈도 못 버는데 조건이 안 돼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엄마, 아이와 종일 지내니 아이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관계개선을 위해서라 짧게 돌봄을 이용하고 싶다는 엄마……. 저마다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르고 모두 돌봄이 필요합니다.

●방과 후 돌봄 기관 운영 현황

돌봄 기관	이용대상	지원내용	운영시간	이용료
지역아동센터	18세미만	보호(급식, 생활, 안전지도), 교육(교과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문화(체험, 참여),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학기 중(14:00~19:00) 방학 중(10:00~18:00) 수요에 따라 야간, 토요일운영	무료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3학년 이상은 학교 여건에 따라 수용 가능)	개인활동(숙제, 일기쓰기, 독서활동 등) 단체 활동(창의력 신장을 위한 예체능 및 체험활동 등)	오후 돌봄(방과 후 ~ 17시까지) 저녁 돌봄(17시~ 22시)	교육비 지원 대상 무료, 그 외 가정은 급, 간식비 수 익자 부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 후 교실	초등 4학년~ 중등2학년	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 활동, 급식, 귀가차량지원	1일 4시간 내외 운영(토요일 방학 운영)	무료(교재비 및 준비물 일부 수익자 부담 가능)
은평구 혁신사업 내 돌봄생태계살리기사업 '짧은 돌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숙제지도, 일상생활관리, 특기 적성활동, 문화체험 등 기관 자율 운영	짧은 돌봄: 1일 3시간 이상 기관 사정에 맞춰 운영 야간 돌봄 : 마을 예술창작소 5시 30분~ 8시 30분	교육비 지원 대상 무료. 그 외 가정은 저녁식사 이용자 부담

### '마을'에서 함께 돌보자

사정이 있어 기존 돌봄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보호자들 말고도 엄마들은 아이들과 마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적정 연령대가 없다고 마음을 나누는 게 순환되니까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아이와 상황이 다르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돌봄은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진관동 다둥이아파트 엄마들은 특히 아이들을 여럿 키우다 보니 돌봄이 언제나 필요하고 아쉽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준별, 단계별 다르게 돌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까지 말하는 걸 보니 학교 끝나고 와서 나가 놀다가 해질녘 집에 들어오는 자식에게 저녁밥 차려주는 거 말고는 특별히 더 신경 쓰지 않는 옛날 엄마들하고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세상이니 귀한 자식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안전하고 다양한 돌봄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제 아이만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마을이 아이들을 돌보는 '누군가'가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하고, 주민 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종이접기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파출소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간판을 걸어뒀는데, 파출소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그려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공장소'는 이미 어느 정도 돌봄의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각자 고유의 기능에 '돌봄'이라는 기능을 살짝 추가하면 훨씬 기능이 다양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돌봄에 대한 묘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돌봄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허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을 놀이터와 골목을 아이들에게 내어주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놀이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은 수많은 연구자에 의한 확실한 연구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른들은 불안해하며 놀이를 허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돌봄입니다. 그냥 시간을 놀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원하는 집중력과 창의력, 또래관계 증진과 정서적 안정 무엇보다 재미 그리고 학습력 향상까지.. 아이들을 놀게 하지 않으니 어른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돌봄생태계살리기 사업에서는 열일 짓고 놀아봤습니다. 놀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밥'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잘 키우려고 프로그램 돌리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을 안에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아이가 제 발로 어디든 못가겠어요? 하지만 그런 곳들이 모두 하나의 커다란 약속에 의해 ‘안전한 돌봄터’가 되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아이가 집 안이나 어느 건물 안에서만 안전한 것이 안전의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기관만으로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라 말하기 민망하니 마을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마을 안에서 학교와 기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고리가 되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돌봄이라 생각합니다.

‘대안’이라는 말은 ‘어떤 안(案)을 대신하는 안’입니다. 돌봄에서의 대안……. 학교 돌봄,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기존 돌봄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존 돌봄 없애고 대신 새로운 돌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돌봄 기관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돌봄 수요와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서 시작한 고민은 ‘마을 돌봄’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지금의 돌봄 체계에 없는 돌봄이라면 충분히 ‘대안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돌봄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 친해지는 노는마당

### 4층 공연장



이야기마당 공유

**진행** 박종윤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  
송재화 (유스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은평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찬조공연

서로 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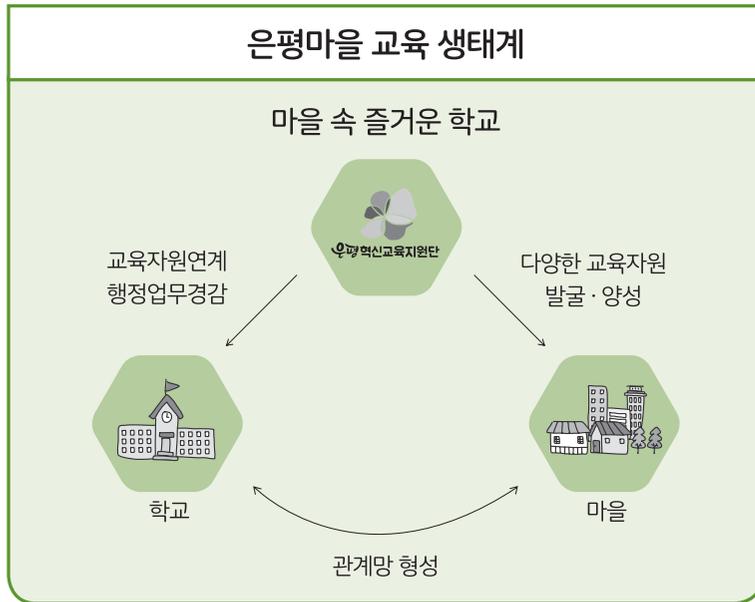
**진행** 한성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이정아 (은평혁신교육지원단)



# 은평혁신교육지원단

## Vision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을과 학교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네트워크하는 혁신교육의 중심



- 01 혁신교육의 '중심센터' 역할
- 02 복지+교육 ⇒ 정책적 대안 마련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 제시)
- 03 지역네트워크 지원
- 04 지속가능성 창출
- 05 민관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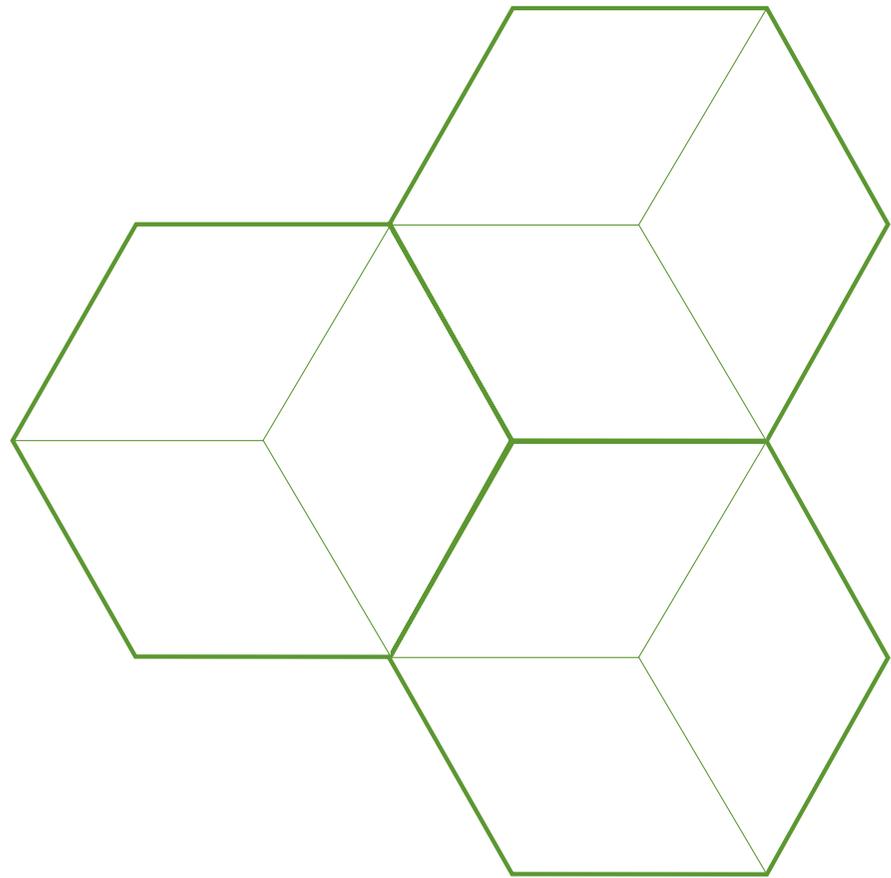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원

## 주요사업내용

중심역할	주요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조율  +  마을의 다양한 교육자원 네트워크	<b>[필수 3] 마을·학교 연계 지원 '마을 속 즐거운 학교'</b> ①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② 학교지원사업(마을학교연계 / 전환기 지원) ③ 마을지원사업(골목놀이터 / 마을강사양성) ④ 마을학교연계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b>[필수 4.1] 민관거버넌스 활성화지원</b> ① 은평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 은평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지원사업 (공청회, 토론회, 협의회 등) ② 네트워크 사업 - 네트워크대회 - 민관학 워크숍 - 찾아가는설명회 -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화 ③ 은평혁신교육지구 평가 연구

전화 02-3152-5522  
 이메일 epsmiletown@daum.net  
 홈페이지 www.epsmiletown.com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



###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

은평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다양한 사람이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즐거이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2015년 4월 17일 창립하였습니다.



이 메 일 epnet4youth@daum.net  
다음카페 cafe.daum.net/epnet4youth  
페이스북 facebook.com/epnet4youth

아동청소년돌봄시설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원	운영시간	대상	
지 역 아 동 동 센 터	광암	가좌로7라길 43 광암교육사회봉사관 1층	070-4025-0953	29	10:00~20:00	초등~중학생	
	광현	연서로27길 31-7 2층	02-385-9320	40	10:00~19:00	초등학생	
	갈현	갈현로 282	02-356-7942	49	10:30~22:00	초등~고등학생	
	그루터기	연서로21길 7-6	02-389-4443	29	10:00~19:00	초등학생	
	누리사랑	증산로 401-18	02-308-7982	49	10:00~23:00	초등~고등학생	
	동그라미	갈현로41길 9 2층	02-383-8883	29	10:30~19:30	초등학생	
	동방	갈현로 29, 202호 (신사코아아파트)	02-382-9387	19	10:30~19:30	초등~중학생	
	공립벨벳	연서로6길 7 3층	02-351-3790	45	09:00~22:00	초등~고등학생	
	보물섬	갈현로 155 3층	02-388-0145	29	10:00~19:00	초등~중학생	
	부림	연서로37길 51 가호	02-387-9661	25	11:00~20:00	초등~중학생	
	비단산	은평터널로 164 현대상가 203호	070-7716-0688	29	10:00~19:00	초등학생	
	성산	증산서길 90 1층	02-305-9200	49	10:00~21:00	초등~고등학생	
	소망의집	역말로 10길 30-1 3층	070-4624-3371	19	10:00~19:00	초등학생	
	은평열린학교	은평로 277	02-353-2268	19	10:00~19:00	초등학생	
	오고싶은	증산로 15길 28 2층	02-302-8955	19	12:00~20:00	초등(고학년)~ 고등학생	
	구립유스광현	연서로 27길 31-7	02-358-3004	34	11:00~22:30	중,고등학생 전용	
	은광	녹번로 55 3층	02-355-6184	49	10:00~22:00	초등~고등학생	
	이레	연서로 35 4층	02-355-8680	43	10:30~21:30	초등학생	
	조은아이들	통일로 68길 15 202호	02-356-1453	49	10:00~21:30	초등학생	
	지역아동 복지센터	꿈이있는 푸른학교	응암로12길27	02-382-1496	49	11:00~22:00	초등~고등학생
행복한		연서로 39 2층	02-386-3246	36	10:00~20:00	초등학생	
푸른꿈나무		불광로 121 3층	02-389-0554	29	10:30~19:30	초등학생	
비전스쿨		가좌로7나길 17 2층	070-7502-4812	19	10:00~19:30	초등(고학년)~ 중학생	
맑은		진흥로9길 8-17 2층	02-387-6988	29	10:00~19:00	초등학생	
샘		연서로11길 7-2	02-6205-5237	19	10:00~19:00	초등학생	
풍성한		증산로 15길 62, 1~2층	02-358-5489	19	10:00~19:00	초등~중학생	
지역아동 복지센터		Ah'늘함께 지역아동복지센터	갈현로11길 30	070-7113-5617 ~5619	60	주중 13:00~19:00 (야간보호~21:00) 주말 월1회 토요체험활동	만 6세~18세 방과 후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접수 관련 상담 요망)
방과후 아카데미		은평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백련산로4길16 은평청소년수련관	070-7113- 4972/4973/4975	34	15:00~19:00	초등4학년~ 중학년3학년
		은평공동육아 방과후협동조합 달려라 방과후	연서로13길 33	070-4960-0808	14	방학중 08:30~19:00 학기중 12:00~19:00	초등1~4학년
아동 양육 시설	은평천사원	갈현로11길 30	02-355-1701				
	(재) 마리아수녀회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02-351-2000				
		초록꿈터	백련산로 14길 20-11	02-351-2100			
		연두꿈터	02-351-2260~7				
선덕원	백련산로 121	02-359-4282 02-383-6320					

학교

구분	학교명	전화번호	비고				
			공/사립	교육복지	특수학급	혁신학교	
공교육	서울갈현초등학교	02-355-0835	공립	거점			
	서울구산초등학교	02-356-9693	공립	거점	o		
	서울구현초등학교	02-352-5517	공립	거점			
	서울녹번초등학교	02-386-0753	공립	거점			
	서울대은초등학교	02-388-0833	공립	일반	o	o	
	서울대조초등학교	02-355-3784	공립	거점	o		
	서울북한산초등학교	02-359-9824	공립	비사업	o	o	
	서울불광초등학교	02-355-1979	공립	거점	o		
	서울상신초등학교	02-303-4245	공립	일반	o		
	서울서신초등학교	02-3152-0705	공립	일반	o		
	서울수리초등학교	02-353-9400	공립	일반	o	o	
	서울수색초등학교	02-372-8286	공립	거점	o		
	서울신도초등학교	02-352-2786	공립	일반	o		
	서울신사초등학교	02-373-9355	공립	거점	o		
	서울역촌초등학교	02-359-0170	공립	거점			
	서울연광초등학교	02-353-4800	공립	거점	o		
	서울연신초등학교	02-387-0373	공립	일반	o		
	서울연은초등학교	02-372-6999	공립	일반	o		
	서울연천초등학교	02-357-3913	공립	일반		o	
	서울은명초등학교	02-359-9518	공립	거점	o		
	서울은빛초등학교	02-388-4923	공립	거점	o	o	
	서울은진초등학교	02-351-3691	공립	일반	o		
	서울은평초등학교	02-355-2578	공립	거점	o		
	서울응암초등학교	02-303-3044	공립	거점	o		
	서울증산초등학교	02-373-6305	공립	일반	o		
	서울진관초등학교	02-386-3396	공립	일반	o		
	초등	선일초등학교	02-355-0160	사립	비사업		
		예일초등학교	02-3800-777	사립	비사업		
		은혜초등학교	02-355-3912	사립	비사업		
		총암초등학교	02-302-2430	사립	비사업		
불광중학교		02-385-8356	공립	거점	o		
상신중학교		02-305-5136	공립	거점	o		
구산중학교		02-389-8784	공립	거점	o		
대성중학교		02-350-0541	사립	거점			
덕산중학교		02-353-9427	공립	거점		o	
선일여자중학교		02-355-9557	사립	거점			
선정중학교		02-3156-1715	사립	거점			
송실중학교		02-305-2671	사립	일반			
중등	신도중학교	02-389-4330	공립	일반	o		
	연서중학교	02-373-9688	공립	거점	o		
	연신중학교	02-383-7836	공립	거점	o		

구분	학교명	전화번호	비고				
			공/사립	교육복지	특수학급	혁신학교	
공교육	중등	연천중학교	02-385-1789	공립	거점		
		영락중학교	02-388-4033	사립	거점		
		에일여자중학교	02-380-0999	사립	거점		
		은평중학교	02-382-3545	공립	거점	○	
		중산중학교	02-303-9293	공립	거점	○	
		진관중학교	02-383-5379	공립	일반	○	
		충암중학교	02-309-2437	사립	거점		
	고등 일반계	대성고등학교	02-3500-542	사립			
		동명여자고등학교	02-385-0655	사립	일반 (학교복지사 배치)	○	
		선일여자고등학교	02-355-9994	사립	일반		
		선정고등학교	02-3156-1700	사립	일반		
		송실고등학교	02-373-5910	사립	일반 (학교복지사 배치)	○	
		신도고등학교	02-3157-0021	공립	일반 (학교복지사 배치)	○	
		에일여자고등학교	02-380-0815	사립	일반 (학교복지사 배치)		
		은평고등학교	02-383-0872	공립	일반 (학교복지사 배치)	○	
		진관고등학교	02-358-0872	공립	비사업 (학교복지사 배치)	○	
		충암고등학교	02-309-0236	사립	일반 (학교복지사 배치)		
	하나고등학교	02-6913-1701	사립				
	고등 특성화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02-383-2628	사립			
		선일비즈니스고등학교	02-352-8025	사립			
선정관광고등학교		02-3156-1600	사립				
세명컴퓨터고등학교		02-354-1323	사립				
신진자동차고등학교		02-385-3451	사립				
에일디자인고등학교		02-380-0851	사립				
은평메디텍고등학교	070-4020-6800	사립					

구분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도시형 대안학교	중, 고등	SIT 대안학교	갈현로 29	02-382-9382	도시형대안학교
	초, 중, 고등	동방학교	갈현로 29, 203호	02-382-9389	초, 중, 고등학생
	중등	은평씨앗학교 (청소년대안공간돌움)	서오릉로 21 4층	02-384-3518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입학연령 13세~15세
특수학교	유, 초, 중, 고등	대영학교	갈현로 11길 30	02-353-2040	유, 초, 중, 고등 특수학교
대안교육 전문기관	서울시학교복지원센터 청소년 징검다리 거점공간	마을n도서관 작공	갈현2동 477-36 1층	070-7657-1533	중, 고등학교 연령 청소년
		꿈꾸는다락방	진흥로1길 17	070-7518-2148	중, 고등학교 연령 청소년
		청소년문화공간 Ju	역말로 14 (역촌동 천주교 성당)	02-382-5652	중, 고등학교 연령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백련산로4길16 은평청소년수련관	02-384-1318	학교밖 아동, 청소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소리나는어린이집	갈현로29길 51-15	02-358-7725	3세~7세 유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소개	거점학교	일반학교	비사업학교
	법정저소득가정 학생 40명 이상 및 상대적 으로 지역여건이 열악한 학교	법정저소득가정 (법정차상위계층포함) 10명 이상인 학교	법정저소득가정(법정차상위계층포함) 10명 미만인 학교 (예산 지원 없음)
서울형혁신학교 소개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대안교육전문기관 소개	위탁형 대안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징검다리 거점공간
	교육청지정학력인정대안학교	서울시지원학력비인정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

### 청소년관련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용시간
서울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	백련산로4길16	02-383-9966	www.woori1318.or.kr	월~금 09:00~18:00 토 09:00~17:00 일요일 휴무
은평구립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연서로6길7	02-353-7910	www.epyouth.org	화~금10:00~21:00 토~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은평구진로직업체험센터	백련산로4길16	070-7113-4993~4996	www.woori1318.or.kr	월~금 09:00~18:00 토 09:00~17:00 일요일 휴무
청소년휴카페 즐거운 반딧불이	은평로21길 32 1층	070-8223-7529	cafe.naver.com/zlban	월~금 08:00~21:00 토 09:00~21:00 일 14:00~21:00

## 복지관련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용대상
굿네이버스서울중부지부	은평로 210 AGM빌딩 4층	02-3157-139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로21길 14-26	02-388-6341~4	은평구 1권역 지역주민 (진관동, 불광1동, 불광2동, 대조동, 녹번동, 응암1동)
사단법인 초록	은평로 193-1	02-389-7708	중증장애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갈현로 11길 30	02-351-3982	은평구 내 장애인 및 가족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은평로38(신사1동 26-18)	02-376-4141	은평구 2권역 지역주민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역촌동, 신사1동, 신사2동)
엔젤스헤이븐	갈현로 11길 30	02-357-1701	은평구 내 결식 아동
월드비전 꿈빛마을	진흥로5길 10	02-357-1318	은평구 내 결식 아동, 청소년
은평교육복지센터	가좌로6길 20 응암초등학교 옆 3층	02-355-1859	은평구 내 교육소외계층 학생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오릉로 174 3층	02-376-3761	은평구 주민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오릉로 174 3층	02-376-3731	은평구 내 다문화 가정
은평구드림스타트센터	증산로 401-18	02-351-7142~7	0~12세빈곤가정아동
은평장애인학부모회	진관1로 76	02-393-4417	은평구 내 장애 아동, 청소년 가정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은평터널로48	02-307-1181~3	은평구 3권역 지역주민 (응암2동, 응암3동, 수색동, 증산동)

## 상담관련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은평로 30, 에스엠타워 6층	02-383-0072	
가치성장과 치유센터	통일로 684 1동 미래청 코워킹스페이스 (서울 혁신파크)	02-352-7498	사회문제, 폭력피해, 아동 치유역량강화
나무그늘심리상담미술치료센터	역촌동 63-63 302호	02-6351-8338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로21길 14-26	02-388-6341~4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명지Wee센터	가좌로 134 명지전문대학 사회교육관 206호	02-300-3962~3970	
명지아동발달센터	연서로 149 갈현베르빌 상가 2층 203, 204호	02-353-7414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보아스아동청소년상담센터	통일로 71길 30 2층	02-6338-2007 070-8713-200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서부재활체육센터 아동발달지원센터	갈현로 11길 30	02-388-662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서부청소년 Wee센터	이화여대길 2 15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02-3905-585~8	
서와정예술심리상담센터	통일로 77길 4 202호(서울혁신파크)	010-7187-7173	
서울시립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련산로4길 16 은평청소년수련관	02-384-1318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늘봄가족성장연구소	은평로 38	070-4757-7027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은평터널로 48 은평종합사회복지관 5층	02-326-1366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연서로34길 11 보건분소	02-353-2801~3	
은평연세심리언어센터	불광로 18길 23	02-384-500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물빛아이맘 상담센터	은평터널로48	02-307-1181~3 070-4673-510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 in공감	연서로 12 청암빌딩 5층	010-5648-251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해와나무 아동발달센터	통일로 87길 19, 3층	02-3157-1275 070-4001-127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바우처안내	대상	신청방법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해결</li> <li>· 소득 및 연령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 만8~13세 아동</li> <li>·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 사정 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li> </ul>	<p>보호자가 동주민센터 신청 (각 바우처 별 대상에 따른 신청 필요 서류 준비 후 신청)</p>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li> <li>· 소득 및 연령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li> <li>·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li> <li>① 의사 진단서·소견서를받은아동</li> <li>②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li> <li>③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li> <li>④ 초·중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한 아동</li> </ul> <p>(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 사정 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p>	

## 도서관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공공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통일로78가길 13-84	02-385-1671~4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증산로 5길 6	02-307-6030
	구립응암정보도서관	가좌로 7길 15번지	02-308-2320~1
	구립삼림마을작은도서관	진관4로 48-55	02-383-7557~8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진관2로 111-51	02-6341-6400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연서로13길 29-23	02-357-0100
은평구 작은도서관 협의회	다섯콩도서관	서오릉로 4길 10, 2층	02-384-1184
	대조꿈나무 어린이도서관	연서로20길 24-6	02-351-5184
	대조제일교회 꿈꾸는도서관	역말로 10가길 22-12	02-386-6680
	어린이 도서관 동네북	진흥로 174 양광교회비전센터3층	070-4652-3160
	물빛마을글방	은평터널로 28 은평종합사회복지관 4층	070-4673-5116
	북카페 물푸레	진관4로 은평뉴타운 삼림마을 742동 1층	02-356-9410
	바다의별 작은도서관	통일로 786 천주교불광동교회	02-355-0545
	불광천 길 370 한양아트빌	불광천길 370 한양아트빌	02-308-3117
	수색장로교회도서관	수색로 16길 15	02-304-6111
	신사어린이 작은도서관	은평로 38 (신사종합사회복지관)	02-376-4141
	역마루 작은도서관	연서로 59 역촌동주민센터 3층	02-351-5304
	은평어린이 영어도서관	서오릉로 87 평생학습관 1층	070-8933-9912~3
	청소년 도서관 작공	연서로21길 16	070-7657-1533
초록길 도서관	연서로 5길 28 부호아파트 102동 상가 1층	02-357-7279	
푸른풀밭 작은도서관	은평로8길 18 창원빌딩 2층	02-354-9199	
햇살이따듯한 아이마루도서관	갈현로 11길 30	070-7113-5723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은평뉴타운 작은도서관 연합회	꿈지락도서관	진관1로 77-8 (폭포동 401동 1층)	070-7721-1002
	두드림 도서관	진관3로 15-35 (구파발아파트1001동 1층)	02-385-2772
	래미안푸른숲도서관	진관3로 77번지 은평뉴타운 래미안 924동 1층	070-8800-8557
	마고정2단지 문고	진관2로 60 (마고정 335동 1층)	02-353-1346
	모퉁이도서관	진관4로 48-51, 730동 1층 (상림마을 14단지730동)	02-351-3995
	산책마을 도서관	연서로46길 7 (기자촌 1110동 B1)	02-351-3677
	상림6단지 도서관	진관4로 107 (상림마을 621동)	02-355-5905
	샐터도서관	진관2로 111-7 은평뉴타운우물골 220동 지하 1층	070-7788-9890
	책뜰에도서관	북한산로 2 1023동 1층	02-355-6893
	큰꿈도서관	진관2로 57-37 (우물골 244동 1층)	02-354-1651
푸른도서관	연서로 455 (537동 1층)	02-359-1801	

### 아동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협동조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은평지회	서오릉로10길 17-3	010-7311-9003	어린이책 문화운동단체	
물, 색, 그리다	역말로 123-4 지하 1층	010-8205-2241	수채화 그림 동아리	
미달이공작단	진흥로1나길 10 B1	010-6578-1318	손문화, 놀이문화	
반짝반짝 사진방	응암로 248 2층	02-358-3478	사진교육	
북앤카페 쿠아레 / 책방비영	진흥로 101 3층	070-8880-7870	워크숍/영화상영/책읽기모임 등	
은평공유센터	연서로 34길 11-1	02-358-0606	물품공유, 목공체험, 공유체험	
은평구 인권센터	은평로195 (은평구청 본관 1층 교통지도과 입구)	02-351-6096~8	인권 일반 상담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은평로 195 은평구청7층 은평구자원봉사센터	02-351-6494	자원봉사활동 연계	
은평구평생학습관	서오릉로 87	070-8933-9901	숨은고수교실, 늘배움교실, 평생학습정보센 터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은평 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서오릉로 226	070-7363-3335	문화예술활동 공간	
은평학부모네트워크		010-2298-0423	학부모 대중강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민관거버넌스 참여	
은평혁신교육지원단	가좌로6길 20 응암초등학교 별관 3층	02-3152-5522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진행	
이상한 나라의 현책방	서오릉로 18 2층	070-7698-8903	워크숍/공연/영화상영 등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가좌로 10길 10	070-4289-6181	마을형청소년케어, 학부모 인문학 아카데미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	통일로87길?5-4 2층	02-744-8890	아동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 램 제공 교육, 문화 콘텐츠 개발	
은평 상상 허브 입주 단체	마을무지개	은평로 245 3층	070-7642-0227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북한산마을목공방		010-3635-8451	목공교육
	사단법인 씨즈		02-355-7913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एको맘 협동조합		070-7591-0172	녹생생활, 녹색소비 교육
	열린사회은평시민회		02-385-4849	청소년 자원봉사 마을학교 세움터
	은평노동인권센터		02-6339-8272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은평마을지원센터		02-351-8501~2	마을공동체 지원
	은평상상		010-4542-1369	
케이로드 넘버원	02-6214-1800	진로교육, 성품교육, 입시,취업 면접 교육, 사회적경제 교육,특성화고 하이로드		
풍물패 터울림	02-354-7302	민요교실, 어린이 풍물배움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고구마교육음악연구소	통일로 684 22-1동 예술청	010-9476-8209	교육음악 콘텐츠 제작
극단날으는자동차	통일로 684 22-1동 예술청	02-764-8092	통합예술교육, 학교폭력, 사회문제
금지동이	통일로 684 28동 업사이클센터	031-947-8943	재활용 장난감 제작
노는엄마 협동조합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01호	010-8731-8131	보드게임, 스포츠스태킹
달려라 피아노	통일로 684 28동 업사이클센터	02-335-3729	예술, 피아노 업사이클링, 지역아동센터 연계
물푸레생태교육센터	통일로 684 1동 409-A호	070-8863-9400	숲속자연학교, 지렁이 환경교실 청소년프로젝트(자유학기제 수업, 동아리활동), 생태마을학교(백련산지기), 생태여행/탐방
사단법인 세상이아	통일로 684 미래청 3층 315-B호	02-352-3511	청소년동아리, 힐링볼런투어, 해외나눔활동, 나눔교육, 진로교육, 봉사교육
은평희망플랜센터	통일로 684 미래청 3층 315A	02-6358-0061	청소년 및 청년가구 대상 교육, 비전스쿨, 비전캠프
은평구도서관마을 협동조합	통일로684 미래청1동 3C 041	010-3180-5770	
자리	통일로 684 1동 미래청 301-b호	070-4642-7095	위기청소년(소년원 및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
트루팩프로덕션	통일로 684 1동 미래청 코워킹스페이스	010-2010-3503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스토리텔링
평화교육프로젝트모모	통일로 684 1동 미래청 303-A호	070-8755-0904	평화, 교육
프로젝트c	통일로 684 7동 7동 예술실협동	010-3773-1311	교육, 지역재생, 영화

